

광 고

원양산업

제 1159 호

(2023년 7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4
- 2023년 상반기 포클랜드 대방사 방한 / 5
- 협회,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 준수 확인 / 6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6월 보고 내용 / 7
- 요리 만들기 / 11
- 오징어순대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2
- 7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 참치어업 동향 / 13
- 중서부태평양 5월 어획량, 조업 노력 감소
- PNG 정부, 어획량 감소로 VDS 가격 인하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00 달러
- 日 5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853 엔
- 日, 5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유럽 황다랑어 가격, 톤당 2,800 유로
- 태국 가공업체, 1분기 가다랑어 원어 수입 증가
- 태국, WCPO 황다랑어 혼획 감소로 1분기 수입량 급감

- EU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급감 / 18
- EU 1분기 참치 로인 수입 감소 / 19
- 에콰도르, 2022년 로인 수입 감소 / 19
- ISSF "2023년 전세계 선망선 수, 1,837척 추산" / 20
- 글로벌 공급망 관련 EU 새 규칙, 참치 기업에 영향 예상 / 21
- 美 사모아 하원의원, MPA 확대 강력 비판 / 21
- 中-솔로몬제도, 양자 협력 MOU 체결 / 22
- 마다가스카르 수역으로 돌아오는 EU 참치어업 / 22
- 필리핀, EU행 참치 수출 관세 특혜 유지 근접 / 23
- FDA: 참치 통조림에 "영구 화학물질" 없음 / 23
- 해수면 온난화, 긴 라니냐의 끝? / 24
- 연구진, 인도양 참치 어종별 dFAD 머무르는 시간 조사 / 25
- 인니, 참치 자원 회복을 위해 참치 어획량 줄여 / 26
- 월마트, 100% 모니터링 가능한 선박 참치만 공급받기로 / 26
- FAO 어류가격지수, 참치 가격 영향으로 상승 / 27
- TUNACONS,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근접 / 27
- NGO, 프랑스 선박 AIS 미작동으로 고소 / 28
- 프랑스 NGO, 석유·가스업계 유착 의혹 제기 / 28
- 中 Ocean Family社, 선망선 신조 계약 체결 / 29
- UN "태평양 도서국, 보다 많은 참치 섭취 필요" / 29
- 오징어어업 동향 / 30
- 일렉스오징어 가격, 톤당 3,800 달러
- 남미 오징어 어획 부진 지속
- 포클랜드 롤리고 어획량, 5만 3,578톤

Contents

• 日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획량 저조	/ 32	• 日,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러시아에 미설득	/ 44
■ 명태어업 동향		• 日 홋카이도 어협조합, 원전 오염수 관련 대책 요청/	45
• 러, 해양 생물 자원 어획량 250만톤	/ 33	• 홍콩, 日 처리수 방출 시 수산물 금수조치 확대 검토/	45
• 러, 명태 할인 판매로 전세계 명태 시장 혼란	/ 33	• 모든 EU 어선에 대한 선박 추적 의무화	/ 46
• 러, 명태 도매 가격 상승	/ 34	• EU, 日 식품 수입 규제 철폐	/ 46
• 러 명태 업계, 연육 생산으로 빠른 전환 중	/ 34	• 러, 수산물 소비변화	/ 47
• 러 명태협회, 자원 보호 위해 국경수비대와 협력	/ 35	• 러, 선박 수리 부가가치세 제외	/ 47
• 美 의원, 러시아산 수산물 원산지 추적 법안 추진	/ 35	• 러, 2035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양식업 투자/	48
• 페로항 '금지령' 면제	/ 36	• 페루, 에콰도르에서 라이선스 캠페인	/ 48
• 러, 철도 보조금 명태만 대상	/ 36	• 2024년 바렌츠해 대구 쿼터 20% 추가 삭감 권고	/ 49
• 러, FAS 쿼터 분배 시스템 지속 개혁 필요	/ 37	• 페루의 멸치 시즌 취소로 중국 어분 가격 상승	/ 49
• 러, CFMC에서 전자 로그북 운영 논의 예정	/ 37	• 日 당국, 새 틈새시장 탐색 장려	/ 50
• 中, H&G 명태 온라인 경매 진출	/ 38	• 日 식품 서비스 그룹, 美·英 주요 초밥 소매업체 인수/	50
• 노르웨이, 러시아 H&G 대구 가격, 강보합세	/ 38	• 수산물 섭취, 심장 대사 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	/ 51
• 러 블라디보스토크, 어항 추가 예정	/ 39	• 中 2023년 수산물 출하량 1/3 증가 전망	/ 51
• 러, 어획 허가 발급 서식 및 제출 형태 업데이트	/ 39	• 베트남 어류 판매량 감소	/ 52
		• 틱톡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선 통조림이 품질	/ 52
■ 공치어업 동향		■ 쉬어가는 난 (시)	
• 日 공치붕수망협회 “최근 공치 어군, 넓고 얇게 분포”	/ 40	•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 - 신현림	/ 53
• 日 공치 어업, 9월 15일 러시아 수역 입어 추진	/ 40		
■ 각국 수산 동향		■ 국내 수산 정보	
• 美,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 41	• 6월 오징어 국내 동향	/ 54
• 美, 5월 수산물 가격 하락	/ 42	• 6월 명태 국내 동향	/ 56
• 美,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원해	/ 42	• “우리 바다 수산물 안전”...해수부, 유통업계·소비자와 소통/	58
• 中, WTO 수산보조금협정 동참 청신호	/ 43	•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 59
• 中,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지지	/ 43	• 안심 수산물 민·관 금식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60
• IUU 이력 있는 中 회사, 기니에 선박 파견	/ 44	•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더 많은 기관이 공유/	60
		• 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수립	/ 61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정부 지원 및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



우리 협회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7월 5일 협회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과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원산업 박상진 전무, 동원수산 왕기철 부회장, 사조산업 김치곤 사장, 신라교역 김호은 사장,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정부 지원 건의 내용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타 수산 단체 동향에 관하여 회장단에 보고하였다.

또한, 회장단은 오염수 방류 대비 협회의 입장 및 8월 예정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간담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23년 상반기 포클랜드 대방사 방한 드래곤社 관계자, 협회·KOMSA·오징어채낚기 선사들과 회의 진행



원양 오징어채낚기 출어 선사들과의 개별 면담 전, 포클랜드 대방사인 드래곤社와 우리 협회 간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 협회는 6월 2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내한한 드래곤社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다.

드래곤社 측은 Shelbourne/Carolyn Wendy 대표, Blazeby/Nigel James 컨설턴트가 참석하였고, 우리 측은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협력2부장 외 2명, 송덕현 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2023 어기 한국 선단의 일반적인 개선 요구사항, ITQ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드래곤社는 이어 6월 29일 KOSMA 부산지부를 방문,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드래곤社 측은

Shelbourne/Carolyn Wendy 대표, Blazeby/Nigel James 컨설턴트가 참석하였고, 우리 측은 협회 협력2부장과 통역사, KOMSA 측은 이동근 부산지사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드래곤社측은 케이프타운협약 비준 전 임시조치로써 IFVC(어선안전확인서) 발급에 대한 한국 측의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고, 한국 선단에 대한 충분한 검사로 인하여 금년에 3년간의 장기허가를 받게 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포클랜드제도 현지에서는 한국 선단이 충분한 안전점검 및 준비에 따라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범사례 보고서도 작성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협회,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 준수 확인

일부 언론 인권 침해 대응 실패 보도에 반박

우리 협회는 최근 일부 언론의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기사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반박하였다.

2021년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수립 이후, 원양업계는 외국인선원 인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며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정(해양수산부·한국원양산업협회·원양선원노동조합)은 합동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매분기 확인 중이다.

현재 총 9회의 노사정 합동점검에서 확인된 고충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일부 언론에서 국제환경운동단체 '환경정의재단(EJF)'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대응 실패 2023년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어선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원양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부정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 SNS 등에 공식 자료를 게재하여 반박하였다.

우리 협회는 △원양업계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휴식 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어업 특성상 매일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1개월 평균해 1일 10시간 이상, 1주 77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 △NGO 조사

내용과 같이 22시간, 30시간 연속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 △성적·신체적·언어적 학대 경험 주장은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확인 불가 △보고서 내용상 인터뷰 시점이 인권보장 이행방안 발표 시점(2021년) 이전과 이후가 혼재되어 있어, 과거의 일이 최근의 일인 것처럼 호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면 관청 승인 및 노조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ITF(국제운수노련) 기준에서 정한 기본급보다 낮은 급여 지불은 불가능함 △외국인 선원이 무기명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재승선 희망률은 98.44%에 이르고, 응답자 중 우리 원양어선에 재승선한 선원의 비율이 76%나 됨 등의 내용을 알렸다.

우리 협회는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없이 인터뷰 대상자의 진술 내용만으로 보고서가 구성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무분별한 보고서 발표에 앞서 언제라도 관련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면 빠른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윤명길 협회장은 “과거 경제 발전이 시급했던 시절에 외국인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모든 원양선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원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볕으로, 올바른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인권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6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다카르, 장인 어업 문제 고심

- 세네갈 COPACE의 WGPA는 6월 15일 목요일 다카르에서 지역 어업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3일간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토고의 대표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지역의 장인 어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한다.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유로/톤)	유종	조사일
다카르	690	경유	'23.6.26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925
	1.8~3.4kg	1,875
	1.5~1.8kg	1,725
황다랑어	10kg~	2,075
	3.4~10kg	1,975
	1.8~3.4kg	1,875
눈다랑어	10kg~	1,925
	3.4~10kg	1,925
	1.8~3.4kg	1,875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국세청, 세수 증가 발표

- 피지 국세청은 금년 6월에 2억 1,117만 달러의 세수로 지난 22년 6월 대비 약 2,109만 달러의 증가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 지난 11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20억 7,000만 달러의 세수가 있었으며 이는 22년 6월 누적 세수보다 37.6% 증가하였다.
- 국세청장은 2023년 7월의 수익 예측도 유사한 궤도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나. 피지, 부가가치세 및 주류, 담배 등 소비세 인상

- 피지 재무장관 Biman Prasad는 2015년부터 9%로 조정되었던 부가가치세가 8월 1일부터 15%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 장관은 아울러 주류 및 담배 소비세 또한 5% 인상을 예정이며, 탄산, 설탕, 사탕, 음료 등에 대한 소비세도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800	로인가공용(PAFCO)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021\$/톤	MGO	'23.7.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0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5톤이다.

나. WestPac 의회, 태평양 도서국 MPA 문제 제기

- 아메리칸사모아에서 개최된 제195차 서태평양 지역어업관리위원회(WestPac)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태평양 도서국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문제였다.
- 회의 개최식에서 Lemanu P.S. Mauga 아메리칸사모아 주지사는 NOAA 과학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내 지역 선망선의 어획량 비율은 특정 지점에서 무려 25%나 되며, 지난 몇 년간 어업 노력이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지역 통조림 공장에 계속해서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어업 노력 및 어획량 유지는 취약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제도연방 태평양 도서국 주지사 3인은 지난 2023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에 MPA 지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3.02(gallon)	'23.7.6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황다랑어	라운드	1,700	
눈다랑어	라운드	1,500	
가다랑어	라운드	1,500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가나 대통령, 해양 보호 및 책임 있는 어업 촉진

- Akufo Addo 대통령은 아크라에서 열린 사상 첫 전국 블루 이코노미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규제 시행을 통해 해양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이것이 남획을 막고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대통령은 "따라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해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대통령의 요청은 해양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위해 그가 제안한 5가지 의제의 일부이며 또한 국가가 해양 보호 구역을 설립하고 해양 서식지를 보호하며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대통령은 현재, 가나의 해양 활동은 주로 공공 자선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며 지난 10년간 가나의 민간 자본 투자 환경은 상당한 성장을 보였지만, "블루 경제에 투입되는 자본은 많지 않았다."라며 민간 자본을 보다 지속 가능한 해양 기반 행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 협력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나. CaFGOAG, 가나 어업 관리 개선 요구

- 쇼가나 카누 및 어로 장비 소유자 협회(CaFGOAG)는 생태계를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로 복원하는 것의 중



요함을 말하며 어업 관리 개선을 요구하였다.

- 세계 IUU 어업 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된 성명에서 협회는 이러한 개입이 어업 감소를 역전시키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류 생산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Nana Kwigyah 회장이 서명한 이 성명은 어획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직면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산 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성명은 또한 해양수산개발부(MoFAD)와 수산위원회(FC)가 주도하는 2022-2026 해양수산관리계획(MFMP)은 쇠퇴한 해양수산자원을 재건하기 위한 좋은 시도이지만,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성명서는 또한 어업 과학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에 대한 협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시행된 다양한 관리 개입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학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kl)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850달러	MGO	'23.6.30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500
	~10kg	2,000
가다랑어	3.4kg~	1,750
	1.8kg~	1,700
	~1.8kg	1,750
	~1.5kg	1,350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새우 양식업자, 인도네시아 관료주에 불만 표명

- 지난 5월 8일 인도네시아 새우 클럽위원장 Muhtadi와 새우양식업 관련단체 대표들이 Ma'ruf Amim 인도네시아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새우 양식 관련 허가의 간소화를 요청하였다.
- 현재 새우양식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1개의 서류를 5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거쳐야 하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 그들은 해양수산부 목표인 2020~2024년간 새우 생산 및 수출 2.5배 달성이 새우양식장 허가의 지연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회의 후 부통령실 대변인 Masduki Baidlowi씨는 부통령은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무회의에서도 논의할 것이라 말하였다.

나. 인도네시아 해조류, 미 정부당국 유기(organic) 제품 재인증

- 인도네시아 해조류 Cottonii종과 Gracilaria종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2018~2023년간에 이어 2023~2028년간 Organic 제품으로 재인증받았다. 인도네시아는 해당 2종의 최대 생산국이다.
- Gracilaria종은 한천의 원료이며, Cottonii종은 Carageenan의 원료이다.
- 이번 재인증으로 인도네시아산 해초류의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초류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 필리핀,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이 있다.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중국 연승선의 진출

- 2023년에 갑자기 출현한 중국 연승선의 척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한 숫자로 관측된다.
- 이전까진 로컬 오퍼레이터에 의한 용선 형식으로 진입하는 외국 선사들도 고비용 및 인프라의 부족, 운반의 제약 등으로 인해 꺼리는 분위기였으나, 2023년에 갑자기 많은 중국 어선들의 진입이 이루어졌다.
- 이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현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나 이러한 식으로의 추진은 결정적으로 자국 수산업 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바, 추후 언제든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PNG 내 치안 부재 문제

- 7월 3일 PNG 수도 Port Moresby에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였다.
- 절도범을 붙잡은 경비원들의 구타로 절도범이 사망하자 사망자의 친척, 가족들이 항의하며 폭동으로 번져 일대가 모두 마비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오후경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리터)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7426	Diesel	'23.7.5

〈 게재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오징어순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통오징어 2마리, 다진돼지고기 1컵, 당근 1/4개, 부추 1줌, 숙주 1줌, 두부 1/4모, 전분 1/2컵, 계란 1개
- 양념: 간장 1/2큰술, 설탕 1/2큰술, 마늘 1/2큰술, 다진대파 1큰술, 굴소스 1작은술, 소금, 후추, 참기름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내장을 제거한 후 다리와 몸통을 분리한다.
- ② 오징어 다리, 당근, 부추, 양파를 다진다.
- ③ 두부는 으갠 후 물기를 빼서 2의 소에 합친다.
- ④ 3의 재료와 다진 돼지고기에 양념을 섞은 후 계란물 1/2개, 전분가루를 넣어 치댄다.
- ⑤ 1의 오징어 몸통에 4의 재료를 넣고 이쑤시개로 고정 후 12분간 찐다.
- ⑥ 5의 오징어순대를 한 김 식힌 후 한 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 완성한다.



7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7월 7일 기준 731 달러

7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8.80 달러, WTI 가격은 74.71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9.26 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 7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731달러로 6월 7일(705 달러) 대비 4% 상승하였다.

7월 평균(7.1~7.7) 가격은 719 달러로 전월 평균(6.1~30) 710 달러 대비 약 1.2% 상승하였다. 전년 7월(7.1~31) 평균과 비교해서는 35% 하락했고, 전전년 7월과 비교해서는 22% 상승하였다.

2023년 평균(1.1~7.7) 가격은 761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26%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30% 상승하였다.

이 같은 상승은 달러 하락, 개발도상국 수요에 대

한 기대, 산유국 감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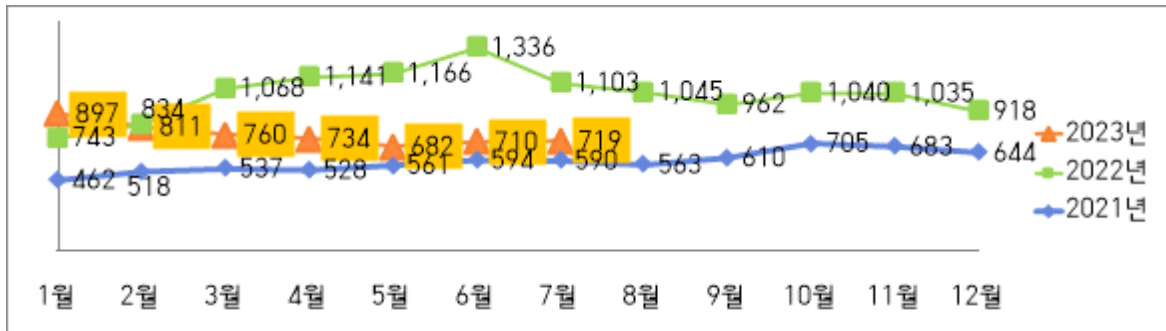
현재 미국 달러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나오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수출기구(OPEC)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하이탐 알 가이스 OPEC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석유 및 가스 회의에서 2045년 말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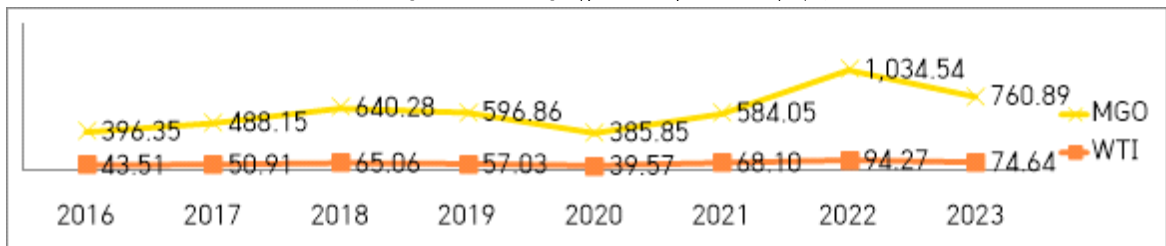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하반기에도 석유 시장이 타이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향후 5개 분기 동안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연말 브렌트유가 81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월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



〈 연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중서부태평양 5월 어획량, 조업 노력 감소

5월 선망 어획량 7만 9,779톤

5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어업 어획량과 조업 노력이 다시 감소하였다. 조업 활동은 키리바시, 나우루, 동부 공해가 70%를 차지하는 등 동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였다.

5월 중서부태평양 총 조업일수는 전년 5월과 비슷한 3,519일로, 4월의 3,787일 대비 7% 감소하였다. 선박일수제도(VDS) 사용량은 2,884일로, 4월(3,517일) 대비 감소하였다. 조업 활동은 키리바시, 나우루 EEZ에서 각각 33%와 17%, 동부 공해에 20%가 기록되었다. 해당 수역을 모두 합치면 전체 조업의 약 70%이다.

세계 최대 참치 어장인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수역에서는 조업이 52% 감소하였다. 미크로네시아(72% 감소), 솔로몬제도(59% 감소), 마셜제도(30% 감소)에서의 조업이 대폭 감소하면서, 선망선단은 중서부태평양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였다.

5월 일일 어획량은 22.7톤으로, 4월의 22.1톤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일일 평균 43.2톤이었던 2022년 5월과 2019~2022년 평균 일일 어획량인 32.1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PNG 어획량은 일일 28톤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서부태평양의 모든 수역 중 최고 수준이다. 키리바시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망선단의 어획량은 일일 22톤으로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나우루 수역 어획량 또한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투발루 수역 일일 어획량은 3.2톤에 그쳤다. VDS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공해상의 일일 어획량은 26톤을 기록하였다.

5월 총 어획량은 7만 9,779톤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올해 4월에 비하면 8% 증가하였다. 가

다랑어 어획량은 10% 감소한 반면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는 각각 42%, 40%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획량 증가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형 황다랑어가 온도가 높은 동부태평양에서 온도가 낮은 중서부태평양 동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의 스쿨조업 대형 황다랑어(9kg 이상) 어획량이 증가하였으나, 가다랑어 어획량은 다시 감소하였다. 전재량은 증가하였으나, 서부 항구에서의 전재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5월 중서부태평양 대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4월 일일 어획량(2.5톤)보다 증가한 4.1톤이었다. 총 어획량은 1만 4,427톤이었다. 최근 어획 보고에 따르면 어획량은 6월에도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0.2톤으로 증가하였고, 치어(Juvenile, 성체와 유체 사이의 단계) 일일 어획량은 0.4톤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소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0.8톤으로 감소하였다.

5월 전재량은 4월 전재량(3만 7,458톤)에서 증가한 4만 8,517톤으로, 이는 조업 기간이 훨씬 길어졌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수개월 간 감소세를 보였던 파푸아뉴기니 항구에서 더 많은 참치 전재가 발생하여, 전재량이 2만 5,000톤에 육박하였다.

미크로네시아 극서부 수역의 전재량은 60% 감소하여, 5,000톤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중서부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마셜제도 수역에서는 전재량이 약 4배로 증가하였다. 키리바시에서의 환적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마셜제도의 전재량 증가는 참치 조업이 동쪽으로 이동 중임을 암시한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6일자, 27일자



PNG 정부, 어획량 감소로 VDS 가격 인하

자국선 6,500 달러, 외국선 7,500 달러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정부는 2023년 첫 수개월 동안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자국 통조림 공장 공급 원활화를 위하여 참치 선망선에 대한 조업일수 제도(이하, VDS) 가격을 인하하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원료 가격 상승 및 참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PNG의 Majestic Seafood Cannery 공장이 폐업하였고, 그 결과 5,0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다. PNG의 다른 공장 및 기업들도 이러한 참치 물량 부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PNG 수산부 장관은 이러한 업계 상황에 대응하여, 어획물 공급 및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VDS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PNG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부과되던 일일 1만 500 달러의 VDS 금액은 PNG 국적선의 경우 6,500 달러로, PNG에 기반을 둔 해외 선박의 경우 7,500 달러로 인하되었다.

PNG는 2023년 동안 1만 2,678일의 VDF를 허용한다. PNG 수역에서는 약 40척의 필리핀 선단이

PNG 또는 필리핀 국적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VDS 가격 인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PNG 정부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의미한다. VDS 1일당 3,000 달러의 손해를 계산할 경우, 총 감소액은 약 3,800만 달러에 달한다.

VDS 1일당 1만 500 달러가 적용될 당시, 당국은 자국 통조림 업체에 대한 원어 공급 확보를 위하여 PNG 어획 참치 1톤당 400 달러의 리베이트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일일 어획량이 약 40톤에 달했던 기간 동안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선망선 1척당 VDS로 1일 1만 500 달러를 지불하고, 1만 6,000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던 셈이다. 이로 인하여 2021년에는 리베이트율이 톤당 308 달러로 인하되었다.

신규 VDS 가격 및 리베이트율에 따라, 7,500 달러의 VDS를 구입하고 현지에 양륙하는 선사는 9,240 달러(일일 어획량 30톤*308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는 셈이며, 이는 일일 1,740 달러의 수익을 의미한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3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00 달러

일부서 톤당 1,980 달러 거래 체결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6월 말에 월초 대비 2.5% 하락하였으나, 가다랑어 가격이 예외적으로 급등한 상황 속에서 3개월간의 FAD 금지기간이 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6월 초 톤당 2,050 달러 선이었던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의 가격은 6월 말 시점 톤당 2,000 달러 선이다. 구매자들이 이 수준 이상의 가격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에서 톤당 1,980 달러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소매업체와 중계업체의 최종 제품 수요가 여전히 낮고, 가공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고 적당한 생산 수준에서 사

업을 운영하려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소식통들은 2022년 12월 이후 계속된 어획량 부진 및 그로 인한 가격 상승, 최종 구매자의 매입을 주저하는 태도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12월부터 2월까지 안정적이었으나, 4월에 톤당 1,700 달러에서 2,050 달러로 급등한 후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가가 유지된 것은 2017년 5월~12월 이후 최초로, 당시에는 10월에 역사적인 고가인 톤당 2,350 달러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3일자

日 5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853 엔

4월 대비 17 엔 하락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5월 수입실적은 선어, 냉장 제품 수입량 499톤(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 수입액 10억 1,900만 엔(93% 증가),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5,111톤(14% 증가), 수입액 206억 4,500만 엔(36% 증가), 가공품 수입량 4,268톤(18% 증가), 수입액 34억 1,600만 엔(30% 증가)으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상승, 증가하였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수입 단가는 kg당 853 엔(15% 하락)으로, 4월 대비 17 엔 하락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5월 수입 단가는 kg당 852 엔(16% 하락)으로, 4월 가격 대비 29 엔 하락하였다.

한편,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에 따르면, 5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상장 마릿수는 1만 260 마리(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이다. 휴장일 전일을 제외하고 연일 500마리 전후로 상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단가는 부진한 편으로, 가장 비중이 큰 서경·태평양산의 kg당 단가 증가(中值,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격) 공표치는 1,124 엔(6% 하락)으로, 4월 가격인 kg당 1,133 엔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냉동고 공간 부족으로,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대기선이 증가한 상태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6월 19일자, 7월 6일자



日, 5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수입량 112톤

〈 2023년 5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날개다랑어	한국	-	96	99	217	155
	대만	27	4	281	473	437
	바누아투	-	1	131	198	353
	기타	105	42	3	-	31
	소계	133	144	396	888	975
황다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중국	54	338	265	304	177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인도네시아	26	94	164	67	17
	미국	-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101
	피지	16	12	28	-	18
	키리바시	4	2	13	3	-
	마셜제도	180	1	197	-	267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눈다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중국	136	373	949	558	479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필리핀	-	-	-	-	-
	인도네시아	1	30	8	8	7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바누아투	41	309	484	613	232
	기타	36	82	40	117	52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남방참다랑어	한국	-	132	-	-	-
	대만	6	10	5	-	-
	호주	-	-	-	-	-
	소계	6	142	5	-	-

* 출처: 일간수산물경제신문, 2023년 7월 6일자



유럽 황다랑어 가격, 톤당 2,800 유로

전월 대비 약 100~150 유로 하락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800 유로로, 전월 대비 약 100~150 유로 가량 하락하였다.

유럽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양 어획 냉동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약 3,200 유로로, 대서양산은 톤당 3,600 유로로, 지난 2개월 대비 하락하였다. 소식통은 이탈리아와 베트남에서 황다랑어 구매자들은 전월 대비 낮은 가격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 특히 동부태평양 쪽에서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가속화되었다. 남유럽의 한 소식

통은 “가격이 급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일부 가공업체는 톤당 2,800 유로를 지불하나, 구매자들은 톤당 2,600 유로까지 가격을 하락시키길 원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멕시코 업체들은 여전히 유럽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업체들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소식통에 따르면, 참치 원어, 올리브유 및 여타 비용 상승 때문에 이탈리아의 수요가 약한 상태이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15일자

태국 가공업체, 1분기 가다랑어 원어 수입 증가

1분기 수입액 2억 달러 이상

태국 가공업체의 2023년 1분기 가다랑어 수입액은 2억 1,786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지난 5년간 연간 수입량 중 2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2만 3,162톤이다. 이는 2023년 1분기 동안 전체 참치류 수입량의 77%를 차지한다. 2019년 이후 매년 1분기 가공업체의 평균 수입량은 12만톤 전후였으나 2021년은 예외적인 어획량으로 인해 14만톤 이상을 기록하였다.

톤당 가다랑어 단가는 약 146 달러 상승하였다. 연초부터 미온적인 수요와 어획량 부진이 참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동안 가다랑어는 톤당 1,700 달러 이상에 거래되었으나, 3월 초 1,800 달러에서 급등하여 이달 말 2,000 달러 선을 돌파하였다.

대만산 가다랑어 수입 단가는 12% 상승한 1,826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63% 증가한 2만 5,169톤을 기록하였다. 미크로네시아산은 비교적 낮은 톤당 1,766 달러였으나 수입량은 37%나 감소한 1만 1,876톤을 기록하였다.

한국산 가다랑어 수입 가격은 19% 상승한 톤당 1,871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평균 가격보다도 102 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13일자



태국, WCPO 황다랑어 혼획 감소로 1분기 수입량 급감 1/3 감소한 4,329만 달러

태국 가공업체의 황다랑어 원어 수입은 올해 1분기에 1/3 감소한 약 4,32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의 소형 황다랑어 혼획량 감소에서 기인하였다.

소형 황다랑어는 선망선 FAD에서 주로 잡힌다. 이 황다랑어들은 2023년 1분기 태국 가공업체 열대 참치 수입량의 약 1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2년 1분기 수입량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단가는 톤당 2,126 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세이셸에서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2,600 유로(약 2,819 달러) 수준으로, 훨씬 비싸게 거래된다. 이는 세이셸 황다랑어 수입이 10kg 이상 개체로 구성되기 때문으로, 태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황다랑어는 5kg 미만이다.

2022년 1분기 태국의 가다랑어 수입 단가는 톤당 1,769 달러이며, 통조림용 황다랑어 가격은 보통 이보다 200~300 달러 더 높다. 올해 황다랑어 수입 단가는 가다랑어보다 톤당 357 달러 더 높다.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이하, WCPFC) 데이터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이 설치한 어구로 어획된 황다랑어의 양은 지난 5년 평균으로 연간 10만톤 정도를 기록하였다. 2020년 황다랑어 어획량(약 10만톤)은 중서부태평양 전체 참치 어획량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3월 동안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이 어획한 소형 황다랑어(9kg 미만)의 양이 일일 평균 1.1~1.4톤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15일자

EU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급감 프랑스 수요 급감

EU는 2023년 1분기 동안 8만 3,573톤의 참치를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2,365톤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평균 가격은 톤당 5,388 유로로 18%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1분기 최고 가격이자 최저 수입량이다.

프랑스 시장은 1분기 동안 무려 53%나 감소한 9,358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수입 가격은 톤당 5,215 유로로, 가격 상승률은 EU 최저 수준인 8%에 그쳤다. 수입량 감소분의 대부분은 황다랑

어 제품인 것으로 추측된다.

독일은 1분기 수입량이 증가한 유일한 시장으로, 1,540톤 증가한 1만 7,911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네덜란드 수입량은 12% 감소하였다.

스페인 시장의 평균 수입 가격은 무려 39%나 상승한 톤당 5,169 유로(약 5,652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량은 3,703톤 감소한 9,764톤이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0일자



EU 1분기 참치 로인 수입 감소

참치 통조림 수요 감소 영향

2023년 1분기 동안 EU에서 수입한 참치 로인의 양은 6만 5,473톤으로, 전년도 1분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666 유로로 17% 상승하였다. EU 외부로부터의 공급은 8,757톤 감소하였고, 이 중 중국산의 감소량은 4,170톤이었다.

중국은 EU에 올해 1분기 동안 2만 3,009톤의 가다랑어 로인을 수출하였고(15% 감소), 이 중 2만 377톤은 톤당 평균 4,963 유로의 가격에 스페인으로 수출되었다. 중국산 로인의 전체 평균 가격은 4,892 유로로 18% 상승하였으나 다른 공급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이었다.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톤당 1,413 유로 상승하였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대부분 2023년 1월 1일 EU 세관에서 통관되어 자율할당관세(ATQ)로 인한 무

관세 혜택을 받는다. 참치 로인에 대한 한도는 3만 5,000톤으로 설정되어 1월 4일에 소진되었다.

중국은 ATQ 한도를 2만 3,009톤만 소진하였기 때문에, 남은 1만 1,991톤은 인도네시아산 황다랑어 로인으로 채워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분기 동안 총 1만 2,758톤(6% 증가)의 로인을 톤당 평균 6,542 유로의 가격으로 EU에 수출하였다. 이러한 고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탈리아 Bolton 그룹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였고, 이들은 산하의 Tri Marine을 통하여 톤당 6,944 유로에 9,161톤의 인도네시아산 로인을 매입하였다.

1분기 통조림 수요 감소로 인하여 특히 에콰도르와 베트남산 로인의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7일자

에콰도르, 2022년 로인 수입 감소

로인 가격 상승 영향

2022년 에콰도르가 수입한 자숙 로인은 총 3,392톤으로, 전년 대비 27%나 감소하였다.

에콰도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통조림 업체에 공급되는 냉동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자숙 로인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산 로인은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 아시아산 로인에 비하여 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에콰도르의 2022년 로인 수입 평균 가격은 톤당 3,270 달러 수준이다. 한편, 에콰도르 가공업체가 EU고객에게 수출하는 중간 제품 가격은 톤당 약 5,000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중국산 로인 수입량은 약 1/3 감소한 2,200톤에 그쳤다. 반면 톤당 가격은 전년 대비 44% 상승한 4,231 달러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2일자



ISSF “2023년 전세계 선망선 수, 1,837척 추산”

전년 대비 소폭 증가

ISSF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참치 선망선 수는 1,837척으로 전년도 7월 발표 대비 29척 증가하였다. 보고서는 상당수의 소형 선망선 또는 단일 EEZ에서만 조업하는 선망선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이하, RFMO) 허가 명단 등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실제 선망선 척수보다 적게 산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형 선망선의 정의는 335m³ 이상의 ‘어획물 수용량(FHV)’을 지닌,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의 열대 다랑어류를 목표로 어획하는 선박이다. 전세계 대형 선망선의 수는 총 652척이며, 어획물 수용량의 총합은 84만 1,341m³이다. 선박 수는 지난 1년간 2% 증가하였으나, 수용량은 1% 증가하였다.

신규 추가된 대형 선망선 중 12척은 2012년 이후 건조되었고, 5척은 2022년에 건조되었다. 2012년 이전에 건조되었으나 2022년 7월 이전에는 RFMO 명단에 없었던 대형 선망선 10척 또한 추가되었다.

에콰도르는 대형 선망선 척수만이 아니라, 어획물 수용량 또한 총 7만 9,903m³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멕시코는 어획물 수용량 2위를 기록하였다. 멕시코의 대형 선망선 수는 에콰도르보다 적지만, IATTC에 등록된 멕시코 국적선의 척당 평균 수용량은 1,000~1,200m³에 달한다. 이들은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주요 선단이다.

대형 선망선 보유수 상위 10개국은 전세계 대형 선망선단의 약 61% 비중을 차지한다. 터키의 보유척수는 68척으로, 상위 10위에 포함된다.

FLAG	VESSELS	FHV(m ³)	FLAG	VESSELS	FHV(m ³)	FLAG	VESSELS	FHV(m ³)
BLZ	11	12090	IRN	5	8566	OMN	1	1850
BRA	1	362	ITA	1	1790	PAN	26	38013
CHN	22	31860	JPN	26	36497	PNG	17	21422
TWN	29	51017	KIR	10	13352	PER	13	6799
COL	13	14590	KOR	44	53601	PHL	46	49009
COK	2	2526	MHL	11	16910	SEN	7	10648
ECU	85	79496	MAU	4	5980	SYC	13	27063
SLV	6	10477	MEX	48	60401	SLB	9	5777
FRA	20	29055	FSM	24	36697	ESP	26	53418
GHA	17	25733	MAR	4	1955	TUV	6	9525
GTM	2	3702	NAU	20	30785	USA	16	26473
GIN	1	1222	NZL	1	1273	VUT	8	15477
IDN	30	10716	NIC	4	6099	VEN	23	29115
						Total		652 841,341

(사진: 국가별 대형 선망선 보유수 및 수용량)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선망선 중 14%가 최소 1개 이상의 RFMO에 등록되어 있다. 중서부태평양에 등록된 선박 수가 326척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에서 실제로 조업하는 열대 참치 대형 선망선 수는 약 250척이다.

100여 척의 선박이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관할에서 조업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거나, 혹은 명단 등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WCPFC 규정에 따르면, 선박의 국적 내 EEZ에서만 조업할 경우, WCPFC에 필수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Top 10 Countries With Highest Fish Hold Volume (FHV)		
Country	Vessels	FHV (m ³)
Ecuador	86	79,903
Mexico	48	60,401
Spain	32	55,977
Korea	44	53,601
Japan	49	51,296
Taiwan	29	51,017
Philippines	46	49,009
Panama	26	38,013
Micronesia	24	36,697
Turkey	68	36,744
Total Capacity		512,658

(사진: 최대 어획물 수용량 상위 10개국)

* 출처: Atuna, 2023년 7월 4일자



글로벌 공급망 관련 EU 새 규칙, 참치 기업에 영향 예상

이해 관계자 가치사슬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6월 1일, 유럽 의회는 인권과 환경 영향을 기업의 지배구조에 통합하는 규칙에 대한 회원국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였다. 유럽 의회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2022년 2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기업은 노동 착취부터 오염 및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예방, 종식 또는 완화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 운송, 보관, 폐기물 관리 및 기타 분야를 포함한 가치사슬 파트너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업종과 관계없이 직원 수가 250명 이

상이고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인 EU 기반 기업에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공급망에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모회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기업도 최소 4천만 유로가 EU에서 발생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EU 참치 업체들이 이러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통조림 및 파우치 참치를 구매하는 최종 소매 업체를 포함한 공급망의 다른 이해관계자도 포함된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6일자

美 사모아 하원의원, MPA 확대 강력 비판

“中 자국 선단 보조금 주는 동안 美 자국 선단 해쳐” 주장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이하, MPA) 확대 결정에 아메리칸사모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경 반대파인 Aumua Amata 하원의원은 중국이 자국 선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 선단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Amata 의원은 최근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이하, CWQ)에 MPA 확대가 학교 급식 및 군 배급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와 군인을 위한 자국산 참치 공급을 보장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산 구매 정책 유지와 상충한다고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CWQ 측이 침묵을 지킨다고 주장하였다.

Amata 의원은 참치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아메리

칸사모아 경제에 MPA 확장 계획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지역 활동의 80%는 약 4,00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스타키스트 통조림 공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최근 MPA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대학 환경지상연구소에서 실시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미국 국적선의 MPA 조업이 매우 적기 때문에, MPA 확장이 아메리칸사모아 참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7일자



中-솔로몬제도, 양자 협력 MOU 체결

중국해양수산공사 투자 허가

중국과 솔로몬제도는 수산 교류 및 협력의 결실인 우호 관계를 지속하길 원한다.

솔로몬제도는 국영 중국해양수산공사(이하, CNFC)가 “상호 관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어떠한 내용의 참치 계약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Nestor Giro 솔로몬제도 해양수산자원부장관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CNFC 대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중국은 솔로몬제도에서 참치어업 및 기타 인프라 프

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던 Bina항 참치 프로젝트 확장을 위하여 솔로몬제도와 중국과 계약이 체결되었다. 솔로몬제도는 또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참치연구센터를 국립대학 캠퍼스에 설립하길 원한다.

지난해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 10개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세계 최대 선단을 보유한 중국에 큰 타격이었다. 도서국들은 8억 1,0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미국과 참치 조약을 체결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8일자

마다가스카르 수역으로 돌아오는 EU 참치어업

연간 지출액 180만 유로

EU와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어업 협정에 6월 30일 서명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2018년에 양측에 의해 중단되었다.

EU는 협력 재개가 역내 어업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EU는 마다가스카르 수역에서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EU 참치 어선 65척은 4년간 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공화국 수역에서 연간 최대 1만 4,000톤의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EU는 7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또 다른 110만 유로가 마다가스카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위 "블루 이코노미"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EU의 연간 기부금은 180만 유로에 달한다.

이 의정서에는 유럽 선박 소유주가 납부하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분담금과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틀 안에서 마다가스카르와의 협력을 장려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7월 5일자



필리핀, EU행 참치 수출 관세 특혜 유지 근접

현행 제도 4년 연장 유력

EU 집행위원회(이하, EC)는 일반특혜관세제도(이하, GSP+)에 따라 필리핀산 참치 통조림 및 기타 수천 가지 제품에 대한 관세 특혜의 갱신을 제안하였다.

EC는 7월 4일 각서에서 12월 31일 만료되는 현행 GSP+ 제도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인권, 노동, 굿 거버넌스, 기후 변화에 관한 27개 국제 협약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리핀은 6,274개 제품에 대한 EU 수출 시 0%의 관

세를 적용받고 있다. 2022년에는 EU에 2만 8,828톤의 참치 통조림, 9,838톤의 자숙 로인, 4,495톤의 냉동 참치 원어를 수출하였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 문제로 인하여 EU 의회의 필리핀 관세 특혜 철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Ferdinand R. Marcos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EU와 필리핀 간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6일자

FDA: 참치 통조림에 "영구 화학물질" 없음

미국, 식품의 영구 화학물질에 대해 체계적 테스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2019년부터 참치와 수산물에 포함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검사하여 "영구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에 대한 식이 노출을 추정해 왔다. 최근 조사에서 FDA는 참치에서 PFAS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구와 새우와 같은 다른 수산물에서는 PFAS를 발견하였다.

5월 31일, FDA는 총 식단 연구 샘플링을 위해 두 지역에서 수집한 186개의 식품 샘플에서 20가지 유형의 PFAS를 검사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 기관은 대구와 새우 샘플 2건과 틸라피아, 연어, 같은 소고기 각 1건에서 검출 가능 수준의 PFAS가 발견되었

다고 밝혔다. 이는 두 데이터 세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며 참치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FDA의 이전 테스트 결과와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TDS에서 테스트한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의 97% 이상(718개 중 701개)에서 PFAS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81개 수산물 품목(참치, 조개, 게, 새우, 틸라피아, 대구, 연어, 명태)을 조사하였다. 태국, 에콰도르, 미국령 사모아의 참치 통조림 및 파우치 샘플 10개 중 9개에서 PFAS가 최소 수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6일자



해수면 온난화, 긴 라니냐의 끝?

에콰도르 업계, 엘니뇨 영향에 대비

지난 몇 주 동안 동부 태평양수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엘니뇨 현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된 라니냐 현상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 연안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이 시기 평균보다 섭씨 2.23도 정도 더 높았다.

에콰도르의 엘니뇨 현상 지역연구위원회(ERFEN)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하반기 엘니뇨 현상 발생에 관한 해양 대기 상태를 평가하였다. 에콰도르 해군의 해양 및 남극 연구소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적도 태평양수역의 온도 이상과 해수면 상승이 6월, 7월, 8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해안 근처의 5월 해수면 온도는 섭씨 27.2도(엘니뇨 1, 2구역)에 달했고, 중앙 태평양(엘니뇨 4구역)에서는 섭씨 25.4도를 기록하였다.

ERFEN은 6월에 기온과 비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기후 패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위터를 통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에콰도르 해역에 참치 및 기타 해양 생물의 감소가 예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콰도르 엘니뇨 현상 지수(IEFEM)에 따르면 5월 초부터 에콰도르의 엘니뇨 현상 조건은 "감시" 단계에 있다. 이는 따뜻한 기온이 기록되었지만, 해당 기간의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황색경보를

발령하였다. 전반적인 예후는 이 기상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에콰도르 선망 선단의 기록적인 어획량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NOAA의 기후 예측 센터는 엘니뇨 감시 경보를 발령했으며,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엘니뇨가 북반구 겨울까지 지속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엘니뇨 또는 라니냐 현상과 참치 어획량의 증가 또는 감소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가 발생하면 참치 어획량이 증가하고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획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FAD에 덜 모이고, 성숙한 어류 때가 더 깊은 수심에서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어탐 및 어획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에콰도르 참치산업 및 가공업체 회의소(이하, CEIPA)'의 Monica Maldonado 사무총장에 따르면, 에콰도르 참치 업계는 과학적 정보를 분석 중이다.

Maldonado 사무총장은 참치 업계가 이미 1998년에 엘니뇨 현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 "참치는 태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양 등지에서도 어획된다. 수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12일자, 7월 4일자



연구진, 인도양 참치 어종별 dFAD 머무르는 시간 조사 눈다랑어 최장

과학자들이 음향 원격 측정법을 사용하여 서부 인도양의 두 수역(모잠비크 해협, 세이셸)에서 태그가 부착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가 부유형 FAD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눈다랑어가 가장 오래 머물고, 가다랑어가 가장 짧게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의 표제는 'Behavior of skipjack (*Katsuwonus pelamis*), yellowfin (*Thunnus albacares*), and bigeye (*T. obsesus*) tunas associated with drifting fish aggregating devices (dFADs) in the Indian Ocean, assessed through acoustic telemetry'으로, 6월 초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작업반 회의에서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진은 연구를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잠비크 해협 및 세이셸 수역에서 4척의 조사선을 운영하였다. 총 56마리의 참치에 태그가 부착되었고, 7개의 dFAD가 배치되었다(4개 모잠비크 해협 배치, 3개 세이셸 배치).

연구진은 참치가 24시간 이상 FAD에 머문 시간을 의미하는 'CRT'를 관측하였다. 연이은 두 CRT

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CAT' 또한 측정되었다. 태그가 부착된 참치가 1시간 이상 부재하지 않고 관찰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FCRT', FCRT 간의 간격인 FCAT 또한 측정되었다.

두 연구 대상 수역을 합친 결과, 평균 CRT는 눈다랑어 7.59일(최소 0.03일, 최대 16.49일), 황다랑어 6.64일(최소 0.01일, 최대 26.72일), 가다랑어 4.58일(최소 0.09일, 최대 18.33일)로 나타났다.

모잠비크 해협에는 참치 세 어종 모두 밤에 dFAD에 진입하는 경우가 훨씬 흔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밤에 dFAD에서 이탈하는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다랑어는 주간과 야간 모두 dFAD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셸에서는 참치의 dFAD 진입과 이탈 시기 패턴이 비교적 불명확하였다. 눈다랑어는 진입과 이탈이 정오와 이른 밤에 분산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황다랑어는 오전 동안 FAD를 떠나 있다가 밤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15일자





인니, 참치 자원 회복을 위해 참치 어획량 줄여

3년간 전체 참치 어획량을 10% 감축 예정

인도네시아는 어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전체 참치 어획량을 2021년 수준의 10%까지 줄일 것이라고 알렸다.

인도네시아 수산부는 최근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개체 수 감소를 이유로 들며 3년간 참치 어획량을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내용의 어획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늦어도 2026년까지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 참치 공급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어획량은 79만 1,000톤으로 14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역에서의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많은

참치 어종이 남획에 직면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의 인도네시아 어장은 이미 완전히 어획되어 어업이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새로 발표된 전략은 어획량 통제 규칙, 모니터링, 임시 조업 구역 폐쇄 등 2018년부터 시행된 임시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FAD 사용 제한과 같은 참치어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전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참치 어획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참치 어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증과 친환경 라벨링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23일자

월마트, 100% 모니터링 가능한 선박 참치만 공급받기로 공급망의 투명성 개선

24개국에 1만 5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이번 주 새로운 참치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지점에서 2027년까지 100% 옴서버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선박으로부터만 참치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전 세계 600개 지점을 운영하는 샘스클럽의 멤버십 리테일 운영에도 적용된다.

"오늘 우리는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는 비목표 어종의 우발적 어획, 불법 어업 및

어구 유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치 공급망의 투명성과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기 위한 더 강력한 기준을 발표합니다."라고 수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말하였다.

옴서버 모니터링은 전자적으로 또는 사람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환적 활동이 100% 옴서버 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는 한 공해상 환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어업에서만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16일자



FAO 어류가격지수, 참치 가격 영향으로 상승

연초 122포인트서 4월 130포인트로 상승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6월 식량 전망에서, 참치와 연어가 수산물 가격 지표 상승을 주도하였다.

FAO 어류가격지수(Fish Price Index)는 올해 연초 122포인트에서 시작되었으나 4월 시점 130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2022년 동월 지수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가격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참치와 연어였다. 자연산, 양식산을 모두 포함한 어류가격지수는 2022년 대비 4.5% 상승하였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EU, 영국의 소비자 구매력 및 참치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참치 가격지수는 2022년 12월 106포인트였으나, 올해 4월에는 130포인트

트로 급등하였다. 연어 가격지수는 작년 12월 128포인트에서 올해 4월 무려 171포인트로 급등하였다.

보고서는 2023년 1분기 참치 어획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FAO에 따르면, 전세계 수생 동물 생산량은 2022년에 약 1.2% 증가하였다. 양식 생산량 증가로 어획량 감소가 상쇄되면서 2023년에는 0.6%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서부태평양 FAD 금어기 및 동부태평양 veda 시기 등을 감안하면, 고가 추세는 9~10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0일자

TUNACONS,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 근접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선망어업 인증 취득 유력

동부태평양 열대참치 선망어업(이하, TUNACONS)의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 범위 확장이 유력해졌다.

6월 16일 발표된 최종 보고서 초안에서, 적합성 평가기관(이하, CAB)인 SCS社は 해당 어업이 MSC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CAB는 지난 1월 20일 발표된 의견 보고서 초안에서 원칙 1에 대하여 80점 이상의 예비점수를 부여하였다. 해당 인증 범위 확장에는 에콰도르, 파나마, 미국 국적의 선망선 46척이 에콰도르와

미국 EEZ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 협약 수역에서의 가다랑어 스쿨조업 및 FAD 조업에 대한 6개의 평가 단위(이하, UoA)가 포함된다.

해당 어업은 2년 전에도 MSC 인증 취득을 시도하였으나 가다랑어 자원 상태로 인하여 황다랑어 조업만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해당 어업의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은 EU 시장에서 MSC 참치 제품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에콰도르에 있어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3일자



NGO, 프랑스 선박 AIS 미작동으로 고소

금지 수역 조업 가능

프랑스 NGO 블룸(Bloom)과 영국의 블루마린재단은 6월 1일 프랑스 국적 참치 어선 21척을 상대로 파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환경단체는 이들 선박이 금지 수역에서 조업하는 동안 어선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세 회사가 소유한 80미터 길이의 선박들이 며칠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추적 신호를 꺼놓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선박이 어디에서 조업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조업이 금지된 지역에

서 조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타임지는 보도하였다.

NGO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25일 사이에 37~72%의 시간 동안 전원을 차단했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선박의 두 AIS 신호 사이에 48시간 이상 경과한 시간을 계산하여 기니만 또는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항로를 재구성하려고 시도도 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2일자

프랑스 NGO, 석유·가스업계 유착 의혹 제기

프랑스 선망단체 비판

유럽 참치 선망선단의 대표적인 비판자 중 하나인 프랑스 NGO 블룸(Bloom)의 대표 Flavien Kulawik과 석유·가스업계 간의 유착 의혹이 나오면서, 해당 NGO의 환경 보호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파리의 유명 시사지 Le Point는 7월 4일, 블룸의 대표 Flavien Kulawik이 해양 석유, 가스, 플라스틱 등 오염 유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KLB 그룹의 공동 회장이라고 주장하였다.

Le Point에 따르면 KLB는 Kulawik과 Jean-Marc Le Breton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컨

설팅 회사로, 종합 에너지 및 프랑스계 유전 서비스 기업인 Technip-Flexi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의 PET 화학공장을 설립하였다.

Orthongel은 성명을 통하여 환경 NGO의 회장이 해양, 석유, 가스, 플라스틱 등 오염 산업과 관련된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폭로가 해양 환경 보호에 헌신하는 NGO를 자처하는 블룸의 자금 출처 및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6일자



中 Ocean Family社, 선망선 신조 계약 체결

용량 약 1,840톤

중국 어업회사 Zhejiang Ocean Family社가 중국 Mawei 조선소와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할 76m 길이의 선망선 신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조선소는 2013년 같은 회사의 의뢰로 New Century No. 111호와 New Century No. 112호를 각각 1억 7,000만 위안(약 2,300만 달러)에 건조한 바 있다.

건조 예정인 선박의 폭은 13.5m, 높이는 7.7m이며 어창 용량은 1,840톤이다. 최대 15.6 노트로 항해할 수 있으며 승선 정원은 38명이다.

푸젠 해운청의 자회사인 Mawei는 현재까지 9척의 선망선을 건조하였다.

Zhejiang Ocean Family 수산물 생산, 판매 및 원양어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서 22척의 초저온 참치 연승선 및 7척의 선망선을 포함한 3척의 원양어선을 소유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6월 13일자

UN “태평양 도서국, 보다 많은 참치 섭취 필요”

어류 섭취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등 섭취 필요

UN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최근 태평양 도서국 주민들이 참치를 비롯한 어류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도서국 내륙 거주민 또는 아동, 여성의 상당수가 참치를 잘 먹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참치는 15개 태평양 도서국 경제 및 식량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당수의 도서국 주민은 어류 섭취가 부족한 편이다. UN은 이러한 주민들이 참치를 비롯

한 어류 섭취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UN은 또한 계절적, 경제적, 지리적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어류 및 타 수산 식품에 적합한 식량 보존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태평양 어류를 구하기 위한 7가지 계획’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UN에 따르면 이는 경제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안전성을 개선하며,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3일자



일렉스오징어 가격, 톤당 3,800 달러

어획 부진·아시아 수요 증가로 급등

1~4월 동안 진행된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업 어획량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업계에 치명타로 간주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오징어 어업은 조업 구역의 오징어 소형화로 인하여 5월 16일부터 21일간 중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다소 개선되면서 어업이 재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가격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높은 수요로 인하여 고가를 유지 중이라고 소식통은 말하였다. 현재 어획량은 최적 수준에 도달하진 못하였으나, 이전에 비하면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오징어산업협회(CAPA)의 Juan Redini 회장은 오징어 어획량이 조업 일시 중단 이후로 개선되었으나, 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하였다. Redini 회장은 7월 말까지 어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 시장, 특히 한·중·일 3국 등의 강력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이 결합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상황을 초래하였다.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가격은 최근 톤당 3,800 달러에 도달하였다. 이는 4월 초 가격인 톤당 3,200~3,400 달러에 비하면 급상승하였다.

중국 기업 Ocean Treasure World Foods Limited社は 최근 기업SNS인 LinkedIn에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량이 좋지 않아 오징어 시장에서 전년 대비 톤당 약 200~300 달러가 상승했다고 밝혔

다. 이들은 오징어 어획량이 좋은 해에는 일일 평균 60톤 정도가 잡히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포클랜드제도 롤리고오징어 어획량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월 26일~4월 30일 동안 이어진 첫 어기 어획량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약 5만톤 수준이었다. 두 번째 어기는 7월 30일~10월 1일이다.

한편, 중국 시장의 경우, 가장 큰 사이즈(600g 이상, 라운드)의 가격은 22주차에 톤당 38,000위안(5,328.17달러)을 기록하며 2020년 초의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하였다. 다른 사이즈(150g~200g, 200g~300g, 300~400g, 400~600g)의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어 톤당 2만 7,000위안에서 3만 6,000위안으로 인상되었다.

22주차(5월 30일~6월 5일)에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 오징어(200g~300g) 가격은 톤당 30,750위안으로 10주차에 비해 26%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참치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가장 작은 등급의 가격은 톤당 27,000위안이었다.

한편, 일본산 무라사키 오징어의 가격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22주차에 200~300g 동 오징어의 평균 가격은 톤당 33,000위안으로 10주차에 비해 22% 상승하였다.

아르헨티나 선박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8만 5,113톤의 일렉스오징어를 어획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한 수치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13일자, 7월 6일자



남미 오징어 어획 부진 지속

중국산 현지 시세 70% 급등

중국 선단이 어획하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의 어획이 계속해서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선 수리로 인하여 출어 척수는 약 2/3 수준인 200여 척까지 감소하였다.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6월 중순 시점 중국 국내시장 원료 가격은 1미 500g 이하가 전년 동기 대비 50~60% 상승한 1만 4,000~1만 4,500 위안이며, 어획물의 주를 이루는 500g~1kg이 60~70% 상승한 1만 2,000~1만 2,500 위안 선이다.

페루의 남미 오징어 어획은 불어가 계속되고 있다. 칠레 조업은 보통 7월 말까지 이어진다. 상사 소식통은 “이후의 어획은 기후에 달렸다.”라고 말하였다.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조업은 대체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200해리 내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반감 수준인 8만 5,333톤 수준이다.

5월 후반부터는 미국의 캐나다 일렉스오징어 어획이 시작되어 6월 8일 시점 어획량은 611톤으로 전해졌다. 전년도 어획량은 5,000톤에 그쳤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4월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스오징어, 대왕오징어 등 포함) 수입량은 2만 4,675톤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하였다. 평균 단가는 25% 상승한 kg당 603 엔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6월 22일자

포클랜드 롤리고 어획량, 5만 3,578톤

5년 연속 기록 달성

포클랜드 제도 천연자원부 국장 Andrea Clausen 박사는 올해 첫 시즌에 5년 연속 롤리고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고 보고하였다. 안드레아는 6월에 열린 수산위원회 보고서에서 총 53,578톤의 롤리고 오징어가 어획되었다고 말하였다.

Clausen 박사는 일렉스 어획량(45,452톤)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낮았다”라고 보고하였다.

Clausen 박사는 롤리고의 높은 어획량은 상업적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적용된 일련의 관리 조치의 결과라고 말하였다.

2024년 일렉스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수산부와 업계 간의 회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일렉스 운영자 그룹과 ITQ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한 초기 회의가 있었지만, 수산부 국장은 회의에서 아직 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시스템에 대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Clausen 박사는 이 작업이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단순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이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Xinhua.net, 2023년 6월 8일자



日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획량 저조

6월 들어 어획 둔화

중형 오징어채낚기선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북태평양 빨강오징어(무라사키오징어)의 여름 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어기의 해당 어업에 착수한 선단의 척수는 지난 어기 대비 1척 많은 24척이다. 각 선은 5월 7일을 기점으로 홋카이도 하치노헤나 하코다테에서 순차적으로 출항하여, 7~10일 사이에 북태평양 공해상의 어장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다. 어획한 오징어는 부산물로 가공되어 선상 동결되었다.

어획물의 양륙지인 하치노헤 어시장 측의 담당자에 따르면, 현지 어획량은 5월에 1일 1척당 100상자(1상자: 약 10.5kg) 전후의 추세로, 직전 어기 대비 좋은 출발이었으나 6월 들어 둔화 추세이다. 담당자에 따르면 어획량이 많은 편인 어선에서도 1일

당 상자 수가 2자리수 수준으로, 6월 들어 어획량이 개선된 지난 어기의 동일 시기보다 하락한 상황이다.

어체 크기는 1상자당 11~15미나 16~20미 등으로, 대형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선박은 7월 중순 무렵까지 조업하고 7월 하순에 하치노헤로 귀항, 생산 제품을 양륙할 예정이다. 이전 어기에는 2척 2,580톤, 1척당 약 110톤을 양륙하였으나, 시장 관계자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에는 1척당 약 100톤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의 어가는 초밥용 원료 수요 등으로 인하여 평균 단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10kg당 약 9,300 엔을 기록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6월 26일자





러, 해양 생물 자원 어획량 250만톤 지난해 대비 명태 6.7% 증가, 대구 15.1% 감소

러시아는 약 242만 6천 톤의 해양 생물자원을 어획하였다(지난해 대비 6월 26일 기준 지난해 대비 3.3% 증가). 이 어획량의 약 75%가 극동 지역에서 어획되었다.

주요 어종의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명태 - 125만 8,000톤(지난해 대비 6.7%증가);

태평양 청어 - 23만 7,800톤(지난해 대비 1.3% 증가);

대구 - 22만 2,700톤(지난해 대비 15.1% 감소);

유럽 청어 - 3만 1,800톤(지난해 대비 8.9% 증가);

카스피해 청어 - 2만 4,800톤(지난해 대비 34.8% 증가);

발트해 청어 - 1만 5,900톤(지난해 대비 +8.2%);

아조프해 멸치 - 8,500톤 (지난해 대비 28% 감소).

수산물 생산량은 146만 1,260톤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하였다. 약 81만 4,000톤의 제품이 러시아 항구로 배송되었다. 20만 2,300톤의 제품은 해상 선박에 있다.

※ 출처: Fishnet, 2023년 7월 3일자

러, 명태 할인 판매로 전세계 명태 시장 혼란

러 연육 제품 세 배로 증가

러시아의 명태 할인 판매로 전세계 명태 시장이 혼란스럽다.

미국 가시제거 필렛 블록 가격은 2022년 톤당 5,000달러를 기록했던 최고 가격에서 4,200달러에서 4,700달러 사이로 떨어졌으며, 미국 생산자들은 러시아의 더블 프로즌 제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육 가공 시설을 운영하는 한 임원은 인트라피쉬와의 인터뷰에서 저급 러시아산 연육이 아시아와 인도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연육 가격은 톤당 2,850달러에서 3,05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면서 계속 타격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값싼 연육을 아시아 시장에 텡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연육 경영진은 확인하였다.

러시아는 올해 연육 제품을 세 배로 증가하며 생산하였으며 가시제거 필렛 블록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의 명태 시장도 반등하여 올해 초 러시아의 전체 수산물 중국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냉동 명태 공급이 전체의 74%를 차지하였다. 러시아산 명태의 대부분은 먼저 중국으로 이동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향하기 전에 재가공된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6월 28일자



러, 명태 도매 가격 상승

올해초 대비 20.5% 상승

지난주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러 수산자원공사에 따르면 명태, 고등어, 대구 등의 도매가격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극동 지역의 명태 가격은 kg당 최대 100 루블까지 2% 상승하였으며, 올해초 대비 20.5% 상승하였다. 청어 가격은 kg당 60루블로 4.8% 하락하였으나 올해 초 대비 9.1% 상승하였다.

외부 시장 상황과 루블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명태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였다. 청어는 국내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북서부에서는 대구와 고등어 가격이 상승하였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어종의 재고 감소와 높은 수출 수요가 원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대서양 고등어 가격은 1.7%(kg당 최대 178루블), 대서양 대구 가격은 0.7%(kg당 최대 278 루블) 증가하였다.

소매 생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6월 6일부터 13일까지 냉동 생선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0.3% 상승하여 kg당 217.27루블로 상승하였으며, 연초에 비해 가격은 4.63% 상승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3년 6월 14일자

러 명태 업계, 연육 생산으로 빠른 전환 중

러 수산물 수입, 전년도 급감 후 다시 증가

러시아가 올해 5월까지 필렛 생산에서 연육(surimi)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를 보였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러시아의 명태 필렛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4만 8,000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동 기간 선상 연육 생산량은 약 4배로 증가한 2만 2,000톤을 기록하였다. 육상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연육은 6,000톤이다.

German Zverev 전러시아어업협회(이하, VARPE) 회장에 따르면, 필렛에서 연육 생산으로의 전환은 유럽 시장에서의 선상 냉동 필렛 판매

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Zverev 회장은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명태 연육 생산량은 올 연말 5만~6만톤에 이를 것이며, 이는 미국 연육 생산량의 약 60~65% 수준이다.”라고 말하였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은 국제 제재의 영향을 받은 전년도에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다시 증가하였다. 5월까지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량은 24만 5,100톤이며, 수입액은 10억 달러 상당이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7월 11일자



러 명태협회, 자원 보호 위해 국경수비대와 협력

명태협회 의심 선박 신고 예정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카에서 국경수비대와 어업협회 간의 실무 회의가 열렸다. 명태협회장도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IUU 어업의 예방, 억제 및 근절을 위한 협력에 동의하였다.

회의 의정서에 따라 협회 회원들은 불법 어업 선박에 대해 국경수비대에 알릴 것이다.

국경수비대는 선박 및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필요한 통제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IUU 어업의 예방, 억제 및 제거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은 2022년 10월 28일 러시아 연방 정부 명령 3199-р호에 의해 승인되었다.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으로 인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합리

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은 해양생물자원과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Aleksey Trubetskoy 국경수비대장은 말하였다.

"명태협회 설립 이래 책임 있는 어업의 원칙을 대중화하고 명태 자원 보존을 목표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다. 동북극국경수비대와의 협력에 대한 합의는 이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국경수비대와의 협력 강화가 러시아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명태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6월 8일자

美 의원, 러시아산 수산물 원산지 추적 법안 추진

美, 中서 3억 달러 이상의 어류 수입

덴 설리반 미국 상원의원은 러시아산 수산물이 다른 국가를 통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수입을 원산지별로 추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은 중국에서 3억 달러 이상의 연어와 명태를 수입하였다. 이 생산량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은 모든 국제 표준에 따라 이러한 "비 러시아" 제품의 미국 진입 또한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리반이 제안한 법안은 미국 명태 어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다. 동시에 수입 생선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은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금지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누구의 사업 이익이 우선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러시아 어민들은 새로운 수출처를 개척하는 데 상당히 성공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6월 19일자



페로항 '금지령' 면제

최소 34척의 러시아 트롤 어선 면제

페로 제도는 지난주 러시아 어선에 대한 '입항 금지 연장'을 발표했지만, 러시아산 흰살 생선을 페로와 쿼터를 교환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제한 조치는 러시아 어선에 군용 무선 통신 장비를 탑재하여 발트해와 북해, 노르웨이 북부 연안에서 '스파이 선박'이 목격된 것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 원양 냉동 트롤 어선이 영국과 페로 공동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 페로와 러시아 간의 쿼터 및 접근권 협정은 2022년에 널리 비판받았다.

2023년 접근권 협정에서 페로 정부는 최소 29척의 러시아 원양어선이 페로 해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에 더해 새로운 '탐사 심해 어업'을 통해 추가로 5척의 러시아 선박이 페로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선박이 페로 수역에서 작은 대구(saithe)를 조업하는 대신 페로 선박이 러시아 수역에서 카펠린을 조업할 수 있도록 교환을 연장하는 연내 합의에 대한 추가 논의에 동의하였다.

6월 초 페로 정부가 발표한 제한 조치에는 '러시아 어선의 항구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페로 제도와 러시아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어업만을 수행하는 어선만이 페로 항구에 입항할 수 있다. 항구에서 러시아 어선의 활동은 선원 교체, 병커링, 급유, 상륙 및 환적으로 제한된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원양어류 수출을 금지한 이후 페로는 오랫동안 러시아 원양어류 시장 접근의 혜택을 누려왔다.

* 출처: FishingNews, 2023년 6월 14일자

러, 철도 보조금 명태만 대상

다른 어종까지 포함 필요

철도 보조금은 농업부에서 관리한다. 그것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적용된다. 보조금이 소진됨에 따라 농업부는 이 국가 지원 조치에 대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에 제안을 내놓았다.

연방수산청은 주로 연어 제품과 같은 다른 해양 생물 자원 운송 보조금을 포함하는 몇 가지 제안을 제출하였다.

전 러시아 수산업 협회 회장도 앞서 다른 어류

의 철도 운송도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이 현재 약 10억 루블에서 20~25억 루블로 확대된다면 극동 항구에서 중앙 지역으로의 수산물 운송을 20~25만 톤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것은 러시아 국내 시장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러연방철도공사, 2023년 6월 7일자



러, FAS 쿼터 분배 시스템 지속 개혁 필요

국가 예산 확보 및 투자 유치에 도움

러연방 독점 금지국(이하, FAS)은 여전히 어업 부문의 주요 문제를 어업 할당량 분배의 "역사적"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2년 러시아 연방 경쟁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수년 동안 수산 부문의 주요 문제는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한 어업(어획) 할당량을 분배하는 "역사적" 원칙이었으며, 이는 수산 부문의 효과적인 경쟁 발전에 주요 장애물이다."라고 보고서에서 말하였다.

계 쿼터 경쟁과 양식장 할당을 위한 전자 입찰은 국가 예산에 상당한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업 및 조선에 대한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등

상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FAS는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분배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전자 경쟁이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믿는다.

FAS는 2022년 말에 2단계 투자 쿼터 및 계 경쟁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되었음을 상기한다.

FAS는 시스템 법률에 따라 "역사적" 원칙에서 전자 입찰로 전환하여 해양 생물 자원 어획 권리를 할당하는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6월 27일자

러, CFMC에서 전자 로그북 운영 논의 예정

5월 31일 논의 예정

중국어판 "전자조업일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오늘 중국원양어업협회(COFA), 저우산해양수산공사(CNFC) 및 중국 어업 회사 대표들에게 발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31차어업위원회에서 전자 조업일지 사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현재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기업들은 이메일을 통해 정해진 양식으로 선박 일일 보고서를 제출한다. 앞으로 중국 어선은 전자조업일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 센

터의 전문가들은 전자 수출 증명서의 실행, 발급 및 확인에 대한 서비스도 시연하였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 서류 발급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수출자의 대면 방문이 필요치 않아 인증서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양측은 테스트를 위해 중국 선박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중국 어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범 운영을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6월 20일자



中, H&G 명태 온라인 경매 진출

최대 오징어 온라인 플랫폼, 흰살 생선 및 참치까지 사업 확장

중국 수산물 거래 플랫폼인 Huacai Technology (베이징)社가 명태 경매를 시작한다.

이 회사는 6월 27일에 러시아 명태 H&G에 대한 첫 경매를 개최하였다.

한 고객("회원 A631")이 "Huacai Dazong" 플랫폼의 온라인 경매에서 25cm이상 H&G 러시아 명태 30톤을 톤당 9,460 위안(1,310 달러)에 입찰하여 성공적으로 낙찰받았다.

시작 가격은 톤당 9,000위안으로, 각 마리당 평균 무게는 260g으로 22kg로 냉동 포장되었다.

해당 명태의 생산 날짜는 2023년 3월 14일이며, 해양관리협회(MSC) 인증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동 사는 현재 거래 플랫폼이 프로모션 기간에 있으며, 상품 및 시장 데이터의 가용성에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 명태 원물 경매는 6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MSC 인증을 받은 25cm 이상의 명태 원료 10톤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생산일은 2023년 3월 12일이며, 시작 가격은 톤당 8,900 위안(1,230 달러)이다.

회사는 모든 제품이 신뢰할 수 있음을 약속한다. 플랫폼은 온라인 운영은 물론 오프라인 검사, 포장 및 배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의 가격 하락과 미국의 냉동 필렛 공급 증가로 인해 H&G 명태 생산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동 사는 중국 최대 오징어 온라인 도매 거래 플랫폼이다. 작년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흰살 생선과 참치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28일자

노르웨이, 러시아 H&G 대구 가격, 강보합세

2024년에 쿼터가 20% 감축 발표 전에도 대구 가격 상승세

목요일에 2024년에 대서양 대구 쿼터가 20% 더 감소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노르웨이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운송되는 대서양 대구의 H&G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2024년에 할당량과 2023년 권고량보다 20% 적은 45만 3,427톤 이하의 대구를 어획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2년 동안 모두 20% 감축되었다.

노르웨이 1~2.5kg의 H&G 대구는 현재 CFR

중국 기준 톤당 5,100~5,200 달러로, 지난 10일 동안 약 200~300 달러 상승하였다.

추가 물량 감축 가능성으로 인해 올해와 2024년까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1~2kg의 H&G 대구는 톤당 4,600~4,700 달러로 더디게 상승하고 있지만,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23일자



러 블라디보스토크, 어항 추가 예정 2022년 75만 2,700톤의 수산물이 철도로 운송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는 항만 인프라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저온 저장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나지모프 반도에 전문 터미널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다. 접안 인프라, 철도 및 도로 접근성을 갖춘 환적 단지가 이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3만 톤의 수산물과 최대 24만 톤의 일반 화물(북방 운송의 틀 내에서)의 환적 용량 증가를 포함한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어장에서 국내 및 해외 시장으로 태평양 생선이 들어오는 주요 진입지점이다. 주요 환적은 케이프 추르킨 역에 인접한 하역 회사를 통해 수행된다.

2022년에 75만 2,700톤의 수산물이 연해주에서 철도로 운송되었다. 수산물 수출의 대부분인 55만 300톤은 냉동(냉장) 컨테이너로 처리되었다.

* 출처: 러연방철도청, 2023년 6월 26일자



러, 어획 허가 발급 서식 및 제출 형태 업데이트

관할 수산청 지부에 전자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

해양생물자원의 어획을 위해 발급하는 허가증의 기재사항, 공제금액, 해양생물자원 이용료 및 납부시기, 작성절차 및 전자제출서식 등이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24일자 ED-7-3/347호의 "해양 생물 자원의 어획에 대한 허가 발급, 공제 금액, 해양 생물 자원 사용 수수료 지불 금액 및 날짜, 완료 절차 및 전자 형식의 제출 형식에

대한 정보 형식의 승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세무청 명령을 등록하였다."

신청서는 연방 수산청의 관할 지부에 전자 형식으로만 제출된다. 해양 생물 자원 사용료 부과 대상인 해양 생물 자원 이름에 대한 코드 목록도 업데이트되었다.

* 출처: 러연방 관세청, 2023년 6월 30일자



日 공치붕수망협회 “최근 공치 어군, 넓고 얇게 분포”

어장 거리 증가로 연비 증대

일본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의 제118회 중앙 협의회가 6월 20일 개최되었다. 해당 협의회에서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치붕수망 어선(199톤) 2척의 실증 결과가 야기타 카즈히로 전국공치붕수망협회(이하, 협회) 조합장에 의해 보고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어군이 넓고 얇게 분포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어장이 먼 곳에 형성되어 연료 비용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치붕수망 어업 지원 프로젝트에서는 ①2019년 제108킨에이마루(108欣栄丸)호를 도입한 사업 3년차와, ②2021년 제38킨에이마루(38欣栄丸)호를 도입한 1년차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공통 규격의 새 선박 2척을 도입하여 수리비 등을 삭감하였으나, 공치 어획 부진이 ①을 개시한 2019

년부터 심각해졌다. 2021년 8월~2022년 8월에는 ①, ② 모두 2026톤의 어획량을 계획하였으나, ①은 197톤, ②는 391톤에 그쳤다. 어획 수입 또한 당초 계획은 3억 7,239만 엔이었으나, 실제로는 ①이 1억 2,560만 엔, ②가 2억 4,713만 엔에 그쳤다.

어장이 먼 곳에 형성되어 탐색 시간이 증가하고 항해 거리도 증가한 데다가, 신선도 보존 문제로 선박의 항해 속도가 올라가면서 연료 소비도 증가하였다.

보고를 받은 협의회 위원은 공치 감소 원인을 질문하였고, 이에 협회 측은 오야시오 해류의 약화 및 먹이 부족 등으로 추측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협의회 측은 “어떻게든 경영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라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마나토신문, 2023년 6월 22일자

日 공치 어업, 9월 15일 러시아 수역 입어 추진

8월 10일부터 톤수별로 순차적 출어 예정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6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3년 어기의 출어방침을 협의하고, 9월 15일 러시아 수역 공치 입어를 개시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전년도 어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국제우편망에서 배제되면서 입어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번 어기는 6월 말 시점에서 송금 및 허가 관련 절차 서류의 전자화 등, 입어 절차 완료에 전념하는 중이라고 조합 측은 밝혔다.

톤수별 출어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8월 10일, 20톤 이상 100톤 미만은 8월 15일, 100톤 이상이 8월 20일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7월 4일자



美,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대만, 태국은 기존 순위 유지, 베트남은 상향 조정

미국 국무부는 6월 15일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경 및 노동 단체의 등급 강등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태국이 전년도에 유지했던 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TIP 보고서는 국가 내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의 만연 정도에 따라 국가를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 대상국, 3등급 등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우려가 낮은 국가를 의미한다.

대만은 13년 연속으로 우려가 가장 적은 1등급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태국은 2018년에 이어 2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일반적으로 1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및 노동권 침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2000년에 통과된 법안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등급 국가는 미국 기준에 따라 노동 기준에 대한 미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미국의 특정 대외 원조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린피스는 대만의 원양어선에서 기록된 학대 사례를

들며 미국이 대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린피스와 다른 노동 인권 단체들은 대만의 어업이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를 일삼고 있다고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우리는 대만 정부가 인신매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사건을 기소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1등급으로 평가한 행정부의 결정에 실망하였다."라고 그린피스 선임 인권 고문은 말하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일부 대만 어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노동 관련 문제를 이유로 Da Wang호가 미국 입항항에서 어획한 모든 수산물의 반출을 거부하는 보류 명령을 내렸고, 이후 같은 선박에 대해 강제 노동 적발 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또한 강제 노동과 관련된 선박에 대해 CBP를 통해 더 광범위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최신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15일자





美, 5월 수산물 가격 하락

인플레이션, 소매 수요 계속 약화

신선 및 냉동 수산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2023년 5월에도 미국 소매 수요를 계속 약화시켰다.

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5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식품 가격은 6.7% 상승하였으며, 외식 물가는 8.3%, 가정 내 식품 가격 상승률은 5.8% 상승하였다.

Nielsen 데이터에 따르면 5월 20일까지 13주 동안 신선 수산물 판매는 금액 기준으로 0.6% 증가했지만, 판매 단가는 3.2% 감소하였다.

5월 20일까지 52주 동안 전체 수산물 판매량은 8.4% 감소했으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

소를 의미한다.

Circana 데이터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 가격은 5월에 5.9% 하락했으며, 신선 수산물 가격은 2022년 5월에 비해 2.2%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 판매액은 3.8% 감소한 5억 5,560만 달러로, 신선 수산물 판매액은 2.2% 감소한 5억 1,14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통조림 등 상온 보관 수산물의 가격은 5.6% 상승하여 매출이 1.5% 감소한 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5월에 신선 조개류 가격이 특히 급격히 하락했지만, 신선 생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13일자

美,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원해

러, 중국 등에서 가공 후 재수출

알래스카주 의회 대표단이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규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침략과 점령에 대응하여 2022년 3월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여러 제재 및 금지 조치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가공 과정을 거친

러시아산 수산물은 차단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미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트롤 어업으로 잡은 대량의 명태를 포함한 어획물을 계속해서 미국 매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종종 중국에서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위장한다.

알래스카 대표단은 이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하원과 상원에 2023년 미국-러시아 연방 수산물 상호주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23일자



中, WTO 수산보조금협정 동참 청신호

내년 WTO 회의 이전 발효 추진

여러 추측이 난무한 끝에, 중국은 수산보조금협정(이하, AFS) 동참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의 참치 선단을 보유한 중국은 AFS에 대한 '수락서(instrument of acceptance)'를 준비하였다. 이는 중국이 비준을 하였고,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는 의미이다.

유해 수산 보조금 폐지 협정인 AFS는 작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다.

WTO의 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중국 상무부 장관 Wang Wentao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았다.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중국의 노력이 해양 안전, 식량 안보 및 많은 사람의 생계에 있

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Wang 장관은 중국이 AFS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4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제13차 WTO 각료회의 이전에 회원국들과 함께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Wang 장관은 “중국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2단계 협상에 참여할 것이며, 협상의 빠른 결과 도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그 전에 WTO 회원국 2/3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국 외에도 EU, 벨리즈,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나이지리아, 세이셸, 싱가포르, 스위스, UAE가 수락서를 제출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7월 3일자

中,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지지

포클랜드 주민투표에서는 영국령 잔류 우세

경상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고 각국에 '식민지적 사고'를 버릴 것을 촉구하였다.

경 대사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에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탈식민지화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발언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 해안선에서 약 600km 떨어진 이 섬들을 영국에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1765년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아르헨티나가 주권이 아닌 에

너지, 해운, 어업 등의 문제를 다루는 2016년 협력 협정에서 탈퇴하고 영유권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섬 주민들이 영국의 자치 해외 영토이자 영국의 일원으로 남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하며 영국 영토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2013년에 실시된 포클랜드제도 주민투표에서는 99.8%가 영국령 잔류에 찬성하였다.

* 출처: MercoPress, 2023년 6월 22일자



IUU 이력 있는 中 회사, 기니에 선박 파견

기니 정부 해양 감시 시스템 도입

중국 어업 회사인 Dalian Ruitafeng社는 서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최근 개조한 선박 3척을 기니로 출항시켰다.

동 회사는 이 세 척의 선박을 "냉동고가 탑재된 신형 트롤어선"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회사는 중국 국영 언론에 이 선박들이 갑오징어, 전갱이, 갈치, 농어를 중국과 기니 시장 모두를 위해 어획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8년 2월, 중국 농업부는 불법 그물 사용과 허가 외 어종, 특히 상어 조업 등 서아프리카에서 불법 어업 위반이 반복되자 Dalian Lianrun의 원양어업 허가를 중단하였다. Lianrun은 가나 국적 및 가나

수역 어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EJF CEO 겸 설립자는 기니에서 외국 소유 및 중국 국적의 상업용 어선이 증가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어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기니의 노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한다.

기니는 2013년부터 어업 모니터링 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 선박 감시 체계(VMS)를 도입하는 등 자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기니는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상 순찰과 항공 감시를 도입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9일자

日,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러시아에 미설득

방사성 핵종 농도에 대한 데이터 미공개

러시아 연방 천연 자원 및 환경부는 일본이 올여름 예정된 후쿠시마 1 원자력 발전소의 해양 방류 전에 수중 방사성 핵종 농도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측은 해양 환경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은 해양 환경으로 배출하려는 해역의 방사성 핵종 농도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를 공개 소스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우려되는 문제이다.

러연방 소비자 보호 및 복지감독청 장관은 이미 각 지부에 일본산 어패류에 대한 위생 및 검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앞서 도쿄가 태평양에있는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1"에서 사고 현장에서 처리된 물 100만㎥ 이상을 투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는 계획이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방류가 안전하며 표준 산업 관행을 준수한다고 주장한다.

* 출처: RBK, 2022년 7월 10일자



日 홋카이도 어협조합, 원전 오염수 관련 대책 요청 도지사에 직접 요청

일본 홋카이도 어업협동조합이 지난 16일 스즈키 나옴치 홋카이도 도지사를 방문하여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한 특별 결의, 자원 관리 및 증대 대책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아베 쿠니오 홋카이도 어업연합회장은 “처리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만일 풍평피해(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홋카이도산 수산물 수입을 타격은 해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수출용 수산물에 영향을 받을 경우,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피해액은 약 800억 엔 수준으로, “(수출이) 중단될 경우, 국내

수요만으로는 도저히 소비할 수 없다.”라고 아베 회장은 말하였다.

스즈키 도지사는 자원 관리 및 증대 대책, 어업 경영기반 강화를 위하여, 6월 수산업 성장산업화 담당국을 설치한 것 외에 22일에 개최 예정된 정례 도의회에 필요한 시책, 예산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도지사는 아울러 “요청을 근거로 하여, 홋카이도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라고 밝혔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6월 20일자

홍콩, 日 처리수 방출 시 수산물 금수조치 확대 검토 홍콩 고위관계자 “후쿠시마 외 수산물도 금수 가능성 있어”

홍콩 정부 환경생태국 세진완(謝展賢) 국장은 11일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의 해양 방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수산물의 금수 대상 지역을 후쿠시마 이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세 국장은 또한 리스크가 예상되는 지역의 수산 제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국장은 검사에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산 어류 및 신선 식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음식 업계에 조기 준비를 당부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6월 14일자



모든 EU 어선에 대한 선박 추적 의무화

EU 수산위원회 어획량 투명성 제고 개정안 압도적 찬성

유럽의회 수산위원회는 어획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어업과 남획에 대처하기 위한 EU 어업관리 규정 개정 합의안에 압도적인 찬성을 표명하였다.

NGO 오세아나는 획기적인 새 규정이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 추적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어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약 4만 9,000척의 소규모 어선을 포함한 모든 EU 어선에 추적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며, 어업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업 효율성을 개선하며 불법 어업에 대처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새로운 통제 규정

에 포함된 모든 선박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야 하는 의무가 2030년에 전면 시행되어 어선 소유자와 운영자가 필요한 기술을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 공표에 앞서 마지막 단계는 올해 말 유럽의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이다.

환경정의재단은 "전자 추적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조치는 어업의 투명성을 높여 EU가 불법 어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28일자

EU, 日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성 확인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

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다.

* 출처: 연합뉴스, 2023년 7월 14일자



러, 수산물 소비변화

명태 홍보와 어획량 증가 영향

지난 5년(2016-2021) 동안 러시아에서 새우, 홍합, 연어, 철갑상어의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러시아인들은 또한 명태와 빨간대구를 더 많이 먹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대구, 청어 및 잉어 종은 식단에서 감소했다.

어류 식단의 기초를 형성하는 상위 5대 수생 생물 자원에는 연어류(곱사연어, 흰연어, 연어, 송어 등), 청어, 고등어, 명태 및 홍합이 포함된다.

러시아의 명태 소비량은 2016년 0.979kg에 비해 2021년 1인당 연간 1.151kg으로 5년 동안 18% 증가하였다.

빨간대구 소비량도 23% 증가한 0.075kg, 메기는 2% 증가한 0.047kg, 고등어는 1% 증가한 0.913kg, 문어는 13% 증가한 0.026kg으로 집계되었다.

동시에 새우 소비량은 연간 1인당 0.333kg으로

3.8배, 홍합은 0.846kg으로 3.5배, 철갑상어는 0.009kg으로 80%, 연어 종은 2.265kg으로 55% 증가하는 등 새우 소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생선과 해산물의 소비 증가는 특히 명태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 홍보를 포함하여 연평균 어획량 증가, 국내 양식 및 양식업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해덕의 연간 소비량은 1인당 0.079kg으로 52% 감소했고, 대구 소비량은 0.293kg으로 10%, 가자미는 0.198kg으로 7%, 청어는 1.425kg으로 6%, 청어는 0.252kg으로 11%, 잉어는 0.358kg으로 6% 감소하였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대구 종의 수출 증가와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대서양 청어의 수입 감소에 기인 할 수 있다.

* 출처: Finshnet, 2023년 6월 27일자

러, 선박 수리 부가가치세 제외

러 대통령, 선박 수리 서비스에 관한 영세율 법률 서명

선박 수리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2023년 6월 24일 연방법 제261호에 의해 제공되며, 2023년 7월 1일에 발효 예정이다.

면제는 항해 선박, 내륙 선박, 혼합(강-바다) 항해 선박 및 어업 선단의 수리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및 재무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여기에는 조선소 생산 시설의 개발 및 현대화를 위한 조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 수익의 20% 이상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매년 할당되어야 한다.

이 계약은 2024년 말까지 실행될 예정이다.

* 출처: FishNews, 2023년 6월 23일자



러, 2035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양식업 투자 사할린 양식업 개발 및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 계획

러시아 극동의 주요 어업 지역인 사할린은 향후 주요 양식 프로젝트에 대한 야심 찬 비전을 제시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19일, 사할린 지역 정부는 쿠릴열도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공개하였다. 사할린 주지사는 러시아 국립농업아카데미와 두 지역의 양식업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이 초안을 시행하려면 2035년까지 최대 1조 루블(119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릴열도의 양식 프로젝트는 결국 사할린 지역에

최대 600억 루블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사할린 정부는 아직 제안된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나 기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양식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러시아 기업 '피셔리 스탠다드'와 모스크바 지역 정부는 50억 루블 규모의 양식 및 사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이 회사가 현대식 송어 양식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23일자

페루, 에콰도르에서 라이선스 캠페인 IUU 어업 30% 감소 목표

월튼 가족 재단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2022년에 설립한 Por la Pesca는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줄이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Por la Pesca는 남미에서 IUU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두 나라의 IUU어업을 5년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Por la Pesca는 5년 안에 1,000명의 선박 소유주에 대한 공정한 면허 및 등록을 완료하여 어

업에 종사하는 최소 6,000명의 어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같은 기간 동안 최소 20개의 원양어업인 협회를 지원하여 어획량에 대한 협상력을 향상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촉진한다. 미등록 어선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수출 시장에 접근하거나 IUU 어업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8일자



2024년 바렌츠해 대구 쿼터 20% 추가 삭감 권고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양

과학자들은 2024년 바렌츠해 대구 쿼터를 추가로 20% 삭감하여 총허용어획량(TAC)을 45만 3,427톤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였다.

노르웨이 해양연구소는 이 권고안을 따르면 동북극 대구 쿼터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르웨이-러시아 연구 그룹은 해덕 쿼터를 25% 삭감하여 12만 7,550톤으로 줄이도록 권고하였다.

대구 쿼터의 20% 삭감은 2022년과 2023년에 비슷한 삭감에 이은 것이다.

연구원들은 현재 대구의 산란 자원이 2008년 이후 최저치인 약 7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에 산란 자원이 220만 미터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감소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20% 감소할 수 있으며 바렌츠해 대구는 더 이상 조건이 환상적이지 않다고 노르웨이 연구진은 말하였다.

연구진은 또한 해덕 쿼터를 2023년 쿼터보다 25% 감소한 12만 7,550미터톤으로 권고하였다.

노르웨이와 러시아 당국은 보통 10월에 열리는 노르웨이-러시아 어업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 최종 쿼터를 설정할 예정이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6월 22일자

페루의 멸치 시즌 취소로 중국 어분 가격 상승

안정된 공급에 대한 불안 요소 작용

페루의 첫 멸치 조업 시즌이 취소되면서 중국에서 어분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중국 최대 어분 수입 항구인 상하이항에서 페루산 슈퍼프라임 등급의 오퍼 가격은 톤당 1,500위안(210달러)이 상승한 16,450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수준보다 높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상승하여, 2020년과 2018년의 최고치를 넘었다.

중국 농업부가 후원하는 중국 간행물인 Feed

Trade는 수입업자들의 강한 수요를 고려할 때 가격은 더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Feed Trade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중국은 항만 창고에 25만 7,400톤의 수입 어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6월 초에 비해 1만 6,000톤 감소했고,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는 5% 감소한 수치이다.

참고로 지난해 페루는 세계 최대 어분 수입국인 중국의 대부분 물량을 공급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6월 19일자



日 당국, 새 틴새시장 탐색 장려

새 어장 개발, 양식업 종사에 예산 조치와 기타 인센티브 검토

새로운 틴새시장을 찾는 것은 온난화 해역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수산청의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인접 해역의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2022년까지 1.24도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0.6도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가 해수면에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어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많은 어종의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 서부 내해에서 주로 어획되던 복어가 지난 몇 년 동안 홋카이도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본 내해에서 잡히는 갈치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도호쿠 지방에서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센다이만에서 치어가 발견되어 갈치의 산란 범위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향으로 꽃게 서식지도 이동하고 있다.

정어리의 어획 지역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홋카이도의 방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일본 북부에서 월동하는 어류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2021년 일본의 총어획량은 319만 1,000톤으로 2014년보다 52만 2,000톤 감소하였다. 특히 꽁치, 태평양 오징어, 연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산청의 전문가 패널은 6월에 여러 가지 제안을 발표하였다. 당국은 다양한 해역에서 여러 상업적 어종의 수확량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어부들도 양식업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많은 어항이 새로운 어획물에 대한 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어류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6월 23일자

日 식품 서비스 그룹, 美·英 주요 초밥 소매업체 인수

거래의 가치는 6억 2,100만 달러

일본에 본사를 둔 Zensho Holdings는 북미와 영국의 식료품점에서 스노우폭스, 벤토, 타이코, 요(YOI) 브랜드로 풀서비스 스시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선도적인 업체인 Snowfox를 인수하였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거래의 가치는 6억 2,100만 달러에 달한다.

Zensho는 이번 인수가 자국 시장을 벗어나기 위한 야망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Snowfox는 북미와 영국에서 셰프가 운영하는 약 3,000개의 스시 키오스크와 기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시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이기도 하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6월 15일자



수산물 섭취, 심장 대사 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

심장대사 질환 걸릴 위험 낮춰

유럽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해산물을 섭취하면 노년 남성의 심장대사성 다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영국 노인 남성의 식이 질, 식이 성분 및 심장 대사성 다질환 위험 사이의 전향적 연관성"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6월 19일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고령 인구에서 심대사 문제의 전 세계적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한 20년간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수행된 최신 연구이다. 이 조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영국의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한두 번 수산물을 섭취하는 60~79세 남성은 고혈압, 당뇨병 또는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 등 여러 심장대사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았다.

연구 대상자의 식이 패턴, 품질 또는 구성과 심장대사성 다질환 위험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산물 및 생선 소비 증가는 심장대사성 질환이 심장대사성 다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당뇨병,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과 같은 한 가지 심장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은 해당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는 또한 지중해식 식단이 급성 심근 경색, 당뇨병 및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채소, 과일, 통곡물, 수산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뇌졸중, 관상동맥 심장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6월 27일자

中 2023년 수산물 출하량 1/3 증가 전망

물량 증가 대비 금액 증가가 적어

전 러시아 어업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러시아 수산물 공급량은 물량 측면에서 32.9%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액 측면에서 28.4% 증가에 그쳤다. 업계의 균일하지 않은 가격 변화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필렛, 민스 및 기타 어육의 출하량은 11.5% 증가했지만, 값은 15.7% 감소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으로의 갑각류 공급은 거의 두 배

로 증가했지만, 수익은 39%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 어업 업계가 공급업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구매자 독재"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중국 이외의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으로의 수산물 공급이 중국으로의 수산물 공급에 비례하여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 출처: Fishretail, 2022년 7월 3일자



베트남 어류 판매량 감소

5개월 동안 수출액 지난해 대비 29% 감소

올해 5개월 동안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액은 약 34억 달러(2022년 대비 29% 감소)로 집계되었다. 한편, 5월의 수치는 8억 8천만 달러로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이하, VASEP)에 따르면 2023년 첫 5개월 동안 주요 수출 품목의 출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0% 범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가시우스(40% 감소), 새우(34% 감소), 참치(31% 감소), 두족류(12% 감소)의 해외 판매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멸치(53% 증가), 노란 줄무늬 전갱이(20% 증가), 전갱이(14% 증가)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각각 48%, 33%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국, 한국, 일본은 각각 25%, 21%, 8% 감소하였다.

VASEP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창고 제품 보관으로 소비 및 수요 감소, 두 번째는 에콰도르와 인도와의 경쟁 등 공급과 가격 측면에서 다른 어류 및 생산국과의 경쟁, 세 번째 이유는 생산 비용 상승, 가격 하락, 소비 감소, 재고 과잉, 자본 가용성 감소로 인해 양식장, 어업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감소가 그 이유이다.

VASEP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시장의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다.

* 출처: FishNews, 2023년 7월 3일자

틱톡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선 통조림이 품질

제품 포장, 현대적 마케팅, 소득 감소와 관련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생선 통조림 데이트' 영상이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작년 말, 미국인 셰프 알리 후크는 자신의 '생선 통조림 데이트' 영상을 TikTok에 업로드하였다. 영상에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생선 통조림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다.

생선 통조림에 관한 동영상은 이미 TikTok 플랫폼에서 2,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는 생선 통조림을 주제로 한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도 있으며, 2만 8,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좋아하는 생선 통조림 브랜드, 좋아하는 시즈닝 조합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영국에서는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생선 통조림 스낵을 제공하는 등 생선 통조림의 인기 붐이 일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출처: Fishretail, 2022년 7월 5일자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

신 현 립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
나무를 보면 나무를 닮고
모두 자신이 바라보는 걸 닮아간다

멀어져서 아득하고 아름다운 너는
흰 셔츠처럼 펄럭이지
바람에 펄럭이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내 눈 속의 새들이 아우성친다

너도 나를 그리워할까
분홍빛 부드러운 네 손이 다가와
돌려가는 추억의 영사기
이토록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많았구나

사라진 시간 사라진 사람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
해를 보면 해를 닮고
너를 보면 쓸쓸한 바다를 닮는다





6월 오징어 국내 동향

연근해 생산 및 원양산 반입 증가, 소비자가격은 하락

□ **생산동향**(6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91% 증가한 8,976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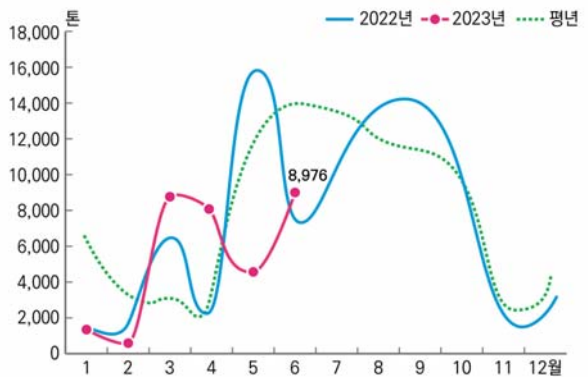
6월 오징어 생산량은 8,976톤으로 전월 대비 91.1% 증가했으며 작년 동월보다도 22.1% 많았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금어기(4.1~5.31) 해제로 전월 대비 81.2% 증가한 1,910톤이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16.9% 적었다.

어장은 동해 중남부해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근해채낚기어업 위주의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평년 대비 부진했다.

권역별로는 동해안지역 1,316톤, 남해안지역 503톤, 서해안지역 69톤 등의 위판실적이 있었다.

원양산 반입량은 7,066톤으로 전월 대비 93.9% 증가했으며 작년 동월보다도 39.8% 많았다. 그러나 평년에 비해 36.2%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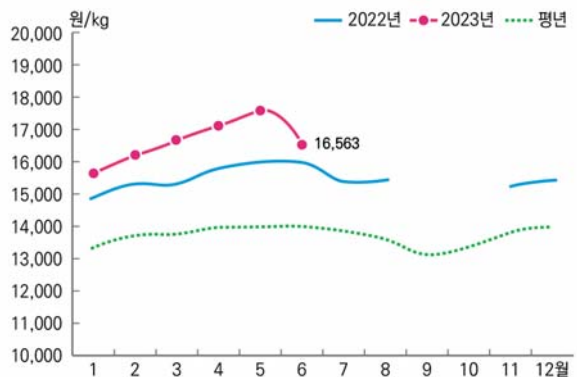
□ **가격동향**(6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6% 하락한 kg당 1만 6,563원)

6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3,070원으로 전월 대비 46.0% 하락하였다.

전월과 마찬가지로 이번달에 어획된 오징어는 대부분 소형어로, 기준 크기 이상의 오징어 유통물량이 적어 신선냉장품의 도매 및 소비자가격은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만 1,462원으로 전월 대비 2.0% 상승하였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 6,563원으로 전월 대비 5.9% 하락하였다. 이는 대형소매점 할인행사 및 어한기 물가 안정용 정부비축물량 방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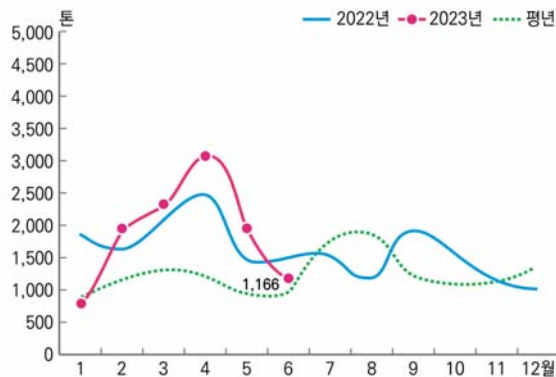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6월 오징어 수출 및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

6월 오징어 수출량은 1,166톤으로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각각 44.7%, 23.3%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각각 611톤, 397톤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냉동품 비중이 높았다. 6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과 비슷한 2만 9,908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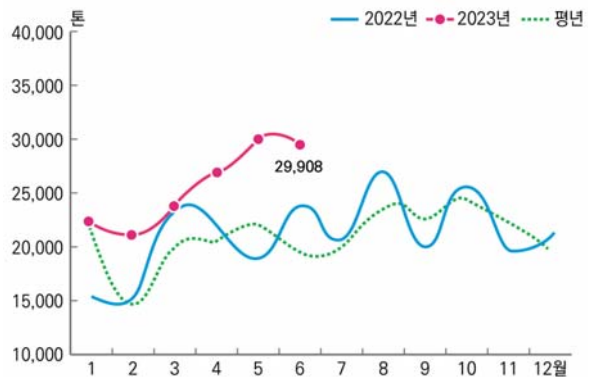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8,02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8,136톤, 칠레산 1,698톤 등의 순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 1만 1,771톤, 기타 1만 8,137톤이었으며, 기타는 대부분 ‘조제 또는 저장처리’ 제품(1만 5,686톤)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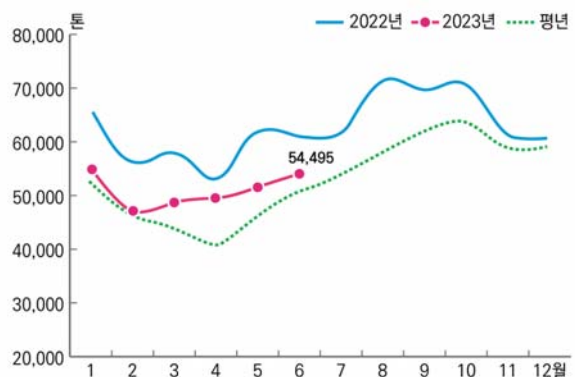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6월 오징어 재고량, 5만 4,495톤으로 전월 대비 8% 증가)

6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5만 4,495톤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음. 생산 및 수입이 전월 대비 늘었기 때문임

7월에는 연근해 생산은 늘 것으로 예측되지만 원양산 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고량은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KMI 수산물측 7월호



6월 명태 국내 동향

원양명태 생산 시작 반입물량 없어, 소비자가격 강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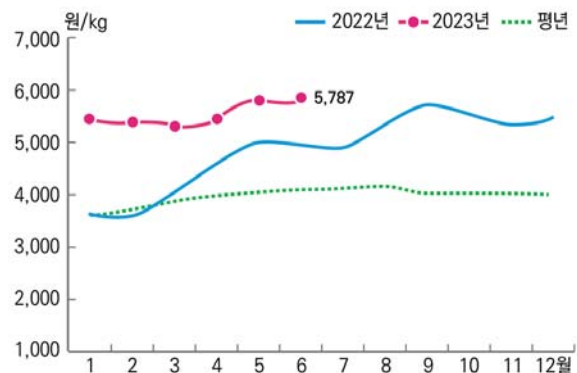
□ **가격동향**(6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5,787원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

6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인 kg당 2,571원이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7.8% 낮았으나, 평년 대비 14.1%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787원으로 일부 대형소매점 할인행사 진행 여부와 할인율 변경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였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16.5%, 41.5%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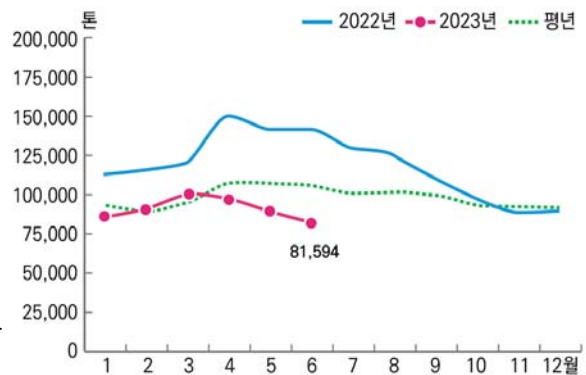
□ **재고동향**(6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6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8만 8,565톤) 대비 7.9% 감소한 8만 1,594톤이었다.

아직까지 B시즌 명태 물량이 반입 및 수입되고있지 않아 재고 감소세가 이어졌다.

작년 및 평년보다도 각각 42.2%, 23.3% 적었다.

7월부터 명태 B시즌 어획물이 반입 및 수입될 예정으로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동향(6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20% 증가한 3만 1,480톤)

6월 명태 수출량은 6,149톤으로 전월(4,066톤) 대비 51.2% 증가했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63.8%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중국으로 냉동필렛(3,809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520톤), 중국으로 냉동명태(231톤) 및 냉동연육(192톤) 등의 순이었다.

6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2만 6,832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7.6%, 15.1%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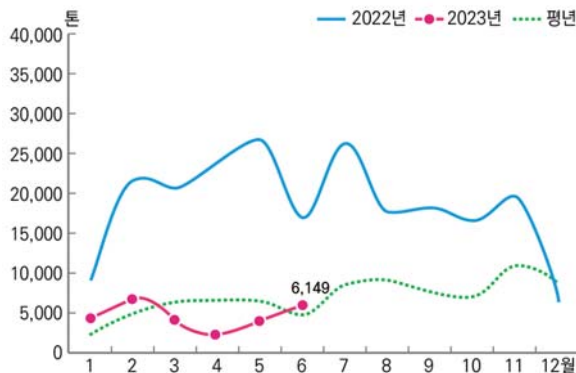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전월(2만 6,180톤) 대비 20.2% 증가한 3만 1,480톤이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0.1% 적었으나 평년보다 19.3%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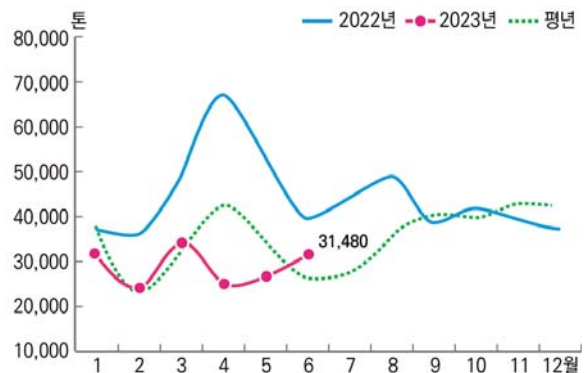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미국산 냉동연육이 9,60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필렛(8,793톤)과 냉동연육(4,680톤) 그리고 냉동명태(3,487톤) 등의 순이었다.

6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7만 2,33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9.0%, 11.8%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7월호



“우리 바다 수산물 안전”...해수부, 유통업계·소비자와 소통 송상근 차관, 6. 16.(금) 서울에서 유통업계 간담회 진행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6일(금) 서울에서 이마트 등 13개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서원유통, GS리테일, 초록마을, 이마트트레이더스, 수협유통, 두레생활협동조합, 한살림사업연합, 행복중심소비자생협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분야에 걸쳐 업계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부산자갈치시장(6.1), 노량진수산물시장(6.2), 국제수산물도

매시장(6.7), 인천종합어시장(6.8), 소비자단체 간담회(6.9)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바다의 수산물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만큼 안전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가질 수 있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바다 및 수산물을 철저히 검사하고 모든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수부, 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안전성 알려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5일(일)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수산물 안전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먼저, 송 차관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의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한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시장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이전과 같이 안전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서,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확실하고 꼼꼼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평소와 같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

해양수산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998년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 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 산업의 환경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약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 발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준국(20개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2023. 6. 26.)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충족하여,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며,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안심 수산물 민·관 급식업체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해수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홍보,
급식업체 국민신청 방사능검사 게시판 활용 방안 검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4일(화)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와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급식 업체는 일부 소비자들이 수산물 안전성 등을 우려하여 수산물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급식 이용자를 위한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마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급식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급식업체에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전광판,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급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개인 신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급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누구나 1인 주 1회를 신청하고, 주당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을 10개 내외로 선정하여 검사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 유통 단계에서 7만 5천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산물 검사 결과와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더 많은 기관이 공유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이용자 및 활용정보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7일(금)부터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공유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유관 기관까지 총 43개 기관이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정보도 지침, 정책동향 등 16개 항목에서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업무망 재난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재난·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대처요령 등도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수립 선원 일자리 매력 높여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 혁신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 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 (국적선원 수) 58,818명(2000년) → 38,758명(2010년) → 31,867명(2022년)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와 '청년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하여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한편, 외국인 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대리)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 장	589-1604	총괄 총무, 자금 서무관리, 차량운영
		공길웅 과 장	589-1605	
		조성환 과 장	589-1606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 사	589-1603	총괄(겸직) 기획, 홍보 원양뉴스, 생산통계
		조성주 과 장	589-1608	
		김민재 주 임	589-1609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 장	589-1610	총괄 무역제도, 수출통계 노사, 선원
		김영수 과 장	589-1611	
		최은혁 주 임	589-1619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 무	589-1602	총괄(겸직)
		최봉준 과 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 임	589-1614	참치선망
	해외협력2부	정윤경 사 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 장	589-1616	총괄
		최상진 주 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이성재 이 사	051-253-3388	총괄 확인업무(수출,반입)	
				김현애 과 장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 장	051-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실	이상묵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 장	044-868-7834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해외진출팀	이 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통계, OFIS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044-868-7833	일본/지역수산물기구

■ 홈페이지: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02-589-1630/1, (부산지부):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044-868-7840

명에해양수산물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수산물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수산물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창원 자문위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자문위원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9호

발행: 2023년 7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간별: 월간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